

제327호 2021년 7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 제 30차 평의원회의 단체사진.  
▶ 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맨 왼쪽)이 노명호(가운데) 16대 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했다.  
오른쪽은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이상강 동문.

# 16대 회장 노명호 동문 공식 취임

## 제30차 평의원회의 LA 개최... 차기 회장에 이상강 동문 당선



노명호  
(미주동창회 16대 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미주동창회장의 중임을 맡은 노명호입니다.

그동안 COVID-19 Pandemic으로 묶여있던 사회가 열리고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어가는 시기에 회장 취임을 하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회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취임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주동창회가 전임회장님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초를 잘 세워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히 많

은 동문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전회장님들의 노력으로 동창회가 정립되고 또 많은 동문들이 Fund Raising에 참여해주셔서 동창회 재정자립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16대 회장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미주 동창회의 Legacy와 기초를 세우는데 동참하신 동문들과 Fund Raising에 참여해주신 동문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건강/수명은 만나거나 통화하는 친구숫자에 비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동창회를 대하는 자세는 "자주 만나고 만나지 못하면 자주 통화하자" 입니다. 저는 Engineering Firm을 창립해 40년을 운영하다가 2019년에 은퇴했습니다. 제가 Entrepreneur로서 배우고 얻은 지혜가 동창회 운영에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16대 회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영방향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동창회는 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70, 80, 90학번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미주동창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6대 사무총장은 81학번이 맡습니다. 또 많은 70, 80, 90 학번 동문들이 다른 16대 임원직들을 맡게 됩니다.

현재의 미주동창회는 지역동창회의 참여가 부진합니다. 남가주, Washington D.C., New England, Chicago, Philadelphia, Minnesota 등 몇개 지부를 제외하면 거의 참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16대 임원들은 26개 지부동창회와 연결 또는 방문을 통해 지부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의 상당부분을 지역동창회에 할당하겠습

니다. 그리고 Fund Raising을 계속하면서 차기회와 협의하여 보람있고 영속성이 있는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미주동창회 회칙(Bylaw)을 간결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평의원회의에서 한글 Version도 공용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회칙은 영문/한글 Version이 Inconsistent하고 복잡해 전문 변호사들에게 Review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고 및 본고 동창회와 연결해 공동사업 Feasibility도 Review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 미주 동창회원님들, 이제까지 미주동창회를 후원해주신것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주동창회를 많이 격려 후원해 주시고 또 동창회 운영과 진로에 관한 의견이나 충고를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16대 미주동창회 주소로 납부 바랍니다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C  
Los Angeles, CA 90006

**SNU ALUMNI ASSOCIATION USA** |

축.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준비하자”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님과 노명호 차기 회장님,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님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특히 오늘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오인환, 박민식, 김광수, 유시영, 김현영 다섯 분의 동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제30차 평의원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와의 싸움은 진행형입니다. 작년 초 한국과 미국은 같은 날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방역 대책에 헛점을 노출하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은 이제 풍부한 백신을 확보하여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선제적 진단 및 추적'으로 대표되는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완전 봉쇄하지 않고도 이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확보에 곤란을 겪으면서 이른바 백신 선진국들과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참석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보건당국의 특별허가를 받았지만 2주간의 격리 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백신의 공급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는 여전히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주 동문들께서 언어의 차이, 문화의 장벽 등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미국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듯, 서울대와 우리 동문들이 코로나19의 극복과 그 이후를 준비는 세계사회의 노력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대학교육은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촉발된 강력한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 그리고 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대학 스스로 미래를 개혁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들로 손꼽히는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와 18세기와 19세기 초반,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국가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은 이제 풍부한 백신을 확보하여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지원과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20세기 최고의 대학으로 재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대한민국과 세계사회를 이끌어온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인류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지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공동체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서울대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 교육하는데 힘쓰고 환경변화의 격랑을 극복하며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국과 모교의 안녕과 발전을 향한 동문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대의 빛나는 전통은 계승될 것이고 창조적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미주동창회를 위해 헌신하신 제15대 신응남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시는 제16대 노명호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모교 발전의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단합력과 인류애를 다시한번”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신응남 회장님과 노명호 차기 회장님, 전임 회장님들과 미주 26개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평의원 여러분과 선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장)

제30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동창회 평의원회는 2만여 미주 동문들의 지력을 확인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1991년 미주동창회가 출범한 이래 단 한 해도 행사를 거르지 않고, 오늘로 서른 번째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라는 지혜로 전통을 이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꼭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종섭 문리대 동창회장과 이승우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널리 헤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오늘은 미주동창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16대 회장단과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간 미주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신 신응남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명호 신임 회장님과 제16대 임원진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신응남 회장님이 이루신 업적은 매달 보내주시는 미주 동창회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넓은 미국 땅에서 전체 회원의 30%에 달하는 동문을 새롭게 발굴하고, '센츄리 파운데이션' 기금 누적액을 약 2배로 증대시켜서 재정을 한층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응남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 모두가, '서울대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단결해서,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도, 동창회와 재미있는 사회에 공헌하신 동문 열일곱 분께 표창패를 준비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지난해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공부하는 동창회, 취미를 살리는 동창회, 회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동창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 총동창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확립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부하는 동창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두 차례의 포럼을 열고 있는데 동문

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주에서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취미를 살리는 동창회를 구현하기 위해 등산회, 골프회, 국토기행 모임 등을 만들었습니다. 회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과 진료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급식당과 유명 호텔리조트펜션까지 동문 가족이라면 누구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님과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님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가족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서울대인들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딜 가든 서울대를 알아주고, 우리 동문들은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를 보면서 서울대인들은 위기에 더욱 강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공을 모아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보여주시는 단합력과 뜨거운 인류애를 기억합니다. 브레인 네트워크를 조직해 모교와 모국의 발전을 위해 지적 자원을 총집결했습니다. 서울대인의 바람직한 현주소와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명호 신임 회장님께서서는 당선 소감에서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위한 젊은 동문들의 참여, 지역동창회와 소통, 기금 모금 활성화를 주요점으로 꼽으셨습니다. 본국의 동창회도 같은 사명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주동창회와 서울대총동창회, 모교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길 바랍니다.

제한된 생활은 여전히지만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1년 전 이맘때보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다시 한 번 제 30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 미주에 계신 동문 가족 모두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사

“15대 회기 빛나는 성과, 함께 이뤄낸 결과”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동문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이제 세계는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중입니다.



신응남 (미주동창회 15대 회장)

지난 30년 동안, 미주동창회 26개 지부는 각각 지체가 되어, 서로 함께 모여 협력하며, 하나의 유기체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지성인의 단체답게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공동이 모여 공동선을 실현하며, 정관에 의거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했습니다. 합리적인 안건이 상정되어, 비록 다수에 의해 의견이 결정되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평소의 민주적인 신념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만이 정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팬데믹 역경 속에서도, 미주동창회는 15대 임기 중에, 여러분의 열화같은 성원과 협조로 10여개의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과를 5 가지로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 내적으로는, 1,700 회원 수 추가한 것 둘째, 중신이사 가입 릴레이를 펼쳐서 중신이사 수를 더불어 업그레이드한 점입니다. 셋째, 외적으로는 카네기 축하음악회 개최, 팬데믹 중에도 평의원회의 및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성공리 개최한 점입니다. 넷째, 미래를 위해서는, 센츄리 재단기금

을 두 배로 증액 모금 및 투자로 동창회 재정자립위한 운영 효율화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지식 보존과 세계화를 위해서 지난 2년간의 회보를 묶어, 540 페이지 컬러판 기념집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역대 회장단이 쌓아 올린 성과 위에 든든한 대리석 계단을 더하여 밝은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2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치고, 내적외적으로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물심 양면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은 애정어린 손길로 감싸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듯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 16대 노명호 회장단과도 소통의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미주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소.감

“발전하는 미주동창회 위해 노력할 것”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기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의예과 70학번 이상강입니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노명호회장님을 도와드리며 일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각 지역, 단과대학, 또 본국 동창회와의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안정화와 동문간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체육과 예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창회관/사무실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융성하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 차기회장(17대)당선자)

주동창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전 지역 동문들을 환영합니다”



최용준 (남가주 동창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에 오신 동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COVID-19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미 전역의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고 또 백신 접종이 활성화 되면서 막연한 긴장감으로부터 다소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스스로 예방과 치료에 잘 대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겨 나아가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에서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평의원회는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잘 이겨내고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더욱 감격스러운 만남의 장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아서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평의원회 뿐만 아니라 각 지부의 동창회 행사들도 예전처럼 활성화되고 모든 동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는 올해 이곳 로스 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제 30차 평의원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동문들이 두

려움 없이 오셔서 편히 지내고 가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며 타주 동문들까지 모실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후시 이번엔 참석하지 못하시는 동문 여러분도 조만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경을 뚫고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의원회에 참석하신 동문 여러분을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동문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젊은 동문의 동창회 참여 유도를 위한 연구

## 평의원회의 특별발표

이번 제30차 평의원회의에서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세 분의 동문들이 젊은 동문의 동창회 참여 유도를 위한 연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의 '노령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각 지부 동창회에서도 이에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 특별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워싱턴 DC, 미네소타 지부의 사례를 비롯한 동문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 워싱턴 DC지부 성공 사례를 통한 연구

오인환 (문리 63) 12대 미주동창회장



### 문제점들과 교훈

- 1940년대 학번대와 2000년 이후 학번대는 70년의 세대차가 있다. → 거의 3세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손자/손녀)가 한자리에 자주 만나는 것은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 세대차이로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 한국적 권위문화도 영향.
- 한두번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곧 화제가 결핍된다.
- 두번 이상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 지역동창회에서 하는 연가 행사는 빈도의 제한이 있다.
-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관심사와 activity가 필요하다.
- What's In It For Me? ("WIIFM")의 생각에 대처할 수 있는 Approach가 결여되어 있다.
-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동문들의 파악이 어렵다.
- 동창회를 위해서보다 동창회가 동창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해결 방법 연구

- 세대 차이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세대별 (혹은 학번 그룹별)로 자주 만나면서 모임을 만들도록 장려한다. 학번그룹별 초창기 모임에 필요한 비용 (점심 혹은 저녁식사)을 지원해 준다.
- 그리고 총회때, 피크닉때, 년말 송년회때 모두 합류하도록 한다.
- 골프 같은 운동으로 자주 만나며 선배배가 섞여서 포섬(foursome)을 만든다.
- 잦은 회식으로 서로 얼굴을 익히고 화제를 만들어 선배후배간 대화를 시도한다.
- 미국의 문화를 활용하여 한국적 상하 권위문화를 극복한다.
- 한국적 정문화를 살려낸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준다)
- 지역에 소재한 혹은 이주하는 동문을 찾는다. LinkedIn, Facebook, 기타 SNS 이용
- WIIFM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Job Search Seminar 개최

### • 아크로폴리스 모임

제25대 회장단(오인환, 2004-2005)에서는 임기 동안에 아크로폴리스 (관악 캠퍼스 세대, 1972학번 이후) 월례 모임을 장려하였다. 리더는 모임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그 이후 회장단도 같은 취지로 이 모임을 후원하였다.

는 12, 14, 20, ... 등으로 늘었고 현재는 멤버가 80명 이상으로 늘어 났고 online 으로 그룹 소통하고 있다.

- 그래서 더 많은 전임회장과 senior 선배님들에게 알려져 sponsorship 을 부탁하는데 모두 기꺼이 응락하시고 참가하여 젊은 동문들과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신다.
- 이렇게 2000학번 이후 사로수 모임이 활

### 마로니에 + 아크로폴리스 + 사로수 모임 장려

### D.C. 동창회 활성화 모델 정립 성공으로 이어져

부를 매번 지원 하여 참가 숫자가 점점 늘여 났다.

### • 사로수 모임

사로수(“사”자는 서울대 logo와 유사), 2000학번과 그 이후 회원모임.

- 2017년 부터는 필자와 전임회장(안선미(작고), 함은선)등 셋이서 sponsor 하기로 하고 2000학번 이후 동문들의 모임을 장려하고 시작하였다. 이 당시 정평희 (공71) 워싱턴회장, 임종식 (의51) 선배님, 아크로폴리스 회원도 참가 하여 sponsor 로 합류.
- 첫 저녁 모임에는 사로수 멤버 네명이 나왔고 전임회장 셋이서 저녁-술값을 쉽게 해결하였다.
- 두번째 회식 모임에는 8명, 세번째 이후로

성화 되다 보니 아크로폴리스 멤버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별도로 모이는 아크로폴리스 모임도 활성화 되고 있다.

### • 사로수 회원들의 특징

(유영준(2002학번) 사로수 회장에 의하면)

1. 젊은 동문들도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하다.
2. 젊은 동문들 역시 동문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며 동문모임에 대한 열망도 강하다.
3. 다만 동문끼리 똘똘할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보니 스스로 동문모임을 만들기에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4. 대신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으로 똘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사로수가 만들어진지 3년만에 80명여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다.



젊은 후배 유입에 많은 발전을 이룬 워싱턴 DC 동창회

### • 마로니에 모임

- “마로니에”라는 이름은 동송동 옛 문리과 대학 캠퍼스에 있었던 나무이름에서 유래되었다.
- 중년세대(아크로폴리스멤버)와 젊은세대(사로수 멤버) 들이 모임의 형태를 갖추고 왕성하게 모이기 시작하니 Senior 세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 최근까지는 별도 모임의 필요를 느끼지 않던 senior 세대들이 시대가 변하니 오히려 별도 모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 그래서 영화감상등 프로그램 (박경일, 농69)을 만들고 몇번 모였으나 COVID-19 제한으로 다른 모임과 같이 쉬고 있는 실정이다.
- 헌 박상근 회장과 임원들이 마로니에 모임을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 • 워싱턴 동창회 활동에 활기

- 아크로폴리스 모임과 사로수 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젊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체 동창회 활동에 활력이 생기고 총회, 피크닉, 송년회 등등 행사가 풍성해 졌고 동호회 혹은 동아리 활동이 많아 졌다.
- 전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시행: Mask Drive (2020년에 뉴욕과 버지니아에 15,000장 기증), 자신 음악회 (격년 마다 개최하여 장애인단체 후원)
- Job Seminar: 미국사회 각 분야에서 중진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 동문들이 job market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인터뷰 준비, job의 종류, 이와 관련된 이민법 안내등을 소개
- 동호회 발족 및 후원 (별불일 있는 모임, 사진, Guitar, Golf, 산행, etc.): 동창회 예산에 반영

## 미네소타 지부 성공 사례를 통한 연구

왕효숙 (사대 65) 16대 미네소타지부 회장



2017-2018년 미네소타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동문들의 고령화 문제와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 결여 문제를 직시,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였는지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미네소타 동문회는 2016년 부터 지금까지 120여명의 동문이 있으며 연령분포는 20-90대까지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연말 총회를 겸한 송년파티이며 동문회 참가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처음 회장을 맡았을 당시 2016년 송년파티에 총 24명이 참석했다.

2016년 말 당시 동문 참가는 매년 10%씩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는 어쩔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으며 다음해는 약 20명 정도의 참석 인원을 예상했다. 송년파티 장소에 비해 적은 참석으로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고심했다.

### • 근본 원인과 문제

1. 인간의 가장 큰 욕구중 하나는 “소속감”이지만 서울대 동문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는 동문회 참가를 위한 조건으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했다.

OM 특징: 1. 아날로그 문화 2. E-mail 대신 우편을 선호 3.전화로 직접 소통하기 원함.

YM 특징: 1.디지탈 문화 2. E-mail 선호 3. 전화통화보다 텍스트 메시지 선호

-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선배와의 식사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에 큰 효과가 없었음.
- 서울대 졸업생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
- 젊은 회원들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Return 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
- 학술 세미나 특히 학과적응, 공부잘하는 Skill, Career Development, 취업에 대한 정보를 다룰때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Q&A가 끊이지 않음.

### • 참여 유도 구체적인 방안

1. 동문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즉, 동문 한분한분을 VIP라는 생각으로 대우.

## 온고지신의 자세로 유익한 재미 추구하기

손영아 (음대 85) 남가주 동창회 임원



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라떼가 젊은이들과 재미있게 소통된다면 말이다. 나 때는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대화는 소통 불가이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 서로 배운다는 생각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

### • 유익한 재미 추구

이유를 막론하고 재미있어야 모이기 마련이다.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재미있을 수 밖에 없다. 골프나 등산 등 다양한 동아리 모임이 그 예가 될 것이다.

### • 운영 방침의 전환

동창회 모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부담감을 느끼는 동문이 많다. 특히 회비에 대해서 그렇다. 언제부터 왜 그러지는 몰라도 회장 등 많은 임원들이 많은 회비를 내고 봉사한다. 나는 여러가지 불필요한 관례들을 보면서 운영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회비나 후원금 납부 회비를 내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동문회 행사에 대한 정보와 학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선배배 교류가 시작된다. 사회에 나와서도 선배들은 대부분 후배들에게 도움 될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배들이 라떼만 찾는다면 후배들은 만나기를 꺼릴 것이다. 라떼란 “나 때는 말이야.”하고 주로 시작하는 기성 세대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 ‘라떼’라는 말을 부정적



▲특별한 노력으로 1년만에 3배가 넘는 동문 참석을 이룬낸 미네소타 지부의 2017년 송년행사.

▶2016년 송년행사.

2. 우선 YM와의 소통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 (자칫하면 ‘곤대, 라떼’가 되기 쉽다) YM소통 문제는 YM간사를 통해 해결 (1년에 1,000달러를 주고 모임을 갖도록 장려) 이에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모임을 즐겼고 동문회의 격려와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도중 김관식 선배님 같은 OM은 YM를 맞이하며 서로간의 barrier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다.

### • 노력의 결과

2017년 송년파티에 총 9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1년만에 3배가 넘는 인원을 기록했다. 모두 행복하고 만족해 보이며 서울대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특히 OM들이 젊은 분위기를 즐겼다. 이 열기는 봄 야유회에서도 이어져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 3.책임 지고 재미있으면 계속 남는다.
- 4.각자의 개성에 맞게 재미있으면 된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특히나 타향살이 하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먼저 이 땅에 와서 자리 잡은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남가주 총동창회의 81학번 젊은 회장이 되고 보면 곧 환갑이다. 그 젊은 회장이 이삼십 대 더 젊은 후배들이 동문회에 관심을 갖고 행사 참여도가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그런데 한창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생업에 바쁜 젊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살기 바빠도 좋은 친구들과는 많은 시간을 기꺼이 할애한다. 재미있고 모범적인 모임이라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권위적인 선배라면 누가 찾아다니고 싶겠는가? 삼촌처럼 이모처럼 후배를 맞이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체 어떤 후배들이 있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후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착하기 바쁜 젊은이들이 어른들 찾아 다닐 시간이 뭐 그리 많겠는가? 또 누구를 어떻게 찾아가나? 그러한 세대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동문회이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라떼는 다 마셔버리고 기성세대라는 권위적인 사고를 버리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누구하고나 소통할 마음의 문만 활짝 열고 유익하고 재밌게 참여하면 된다.

### 생각을 정리하며

1. 매너를 지키고 재미있으면 모인다.
- 2.가식 없이 재미있으면 다시 찾아온다.

첫째날 - 세미나 및 환영만찬



이희범 한국 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상자들. 왼쪽부터 홍경삼, 오형원, 민일기, 황효숙, 김종섭 상임부회장, 이희만, 송세진, 민병곤, 지홍민.

전 미주 동문 14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첫날, 황경순·장소현·고종성 강사세미나... 박경재 LA총영사 참석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회장: 신용남)에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제30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초청된 강사들. (왼쪽부터) 황경순 교수, 장소현 작가, 고종성 박사.

첫 날인 25일 행사는 황경순(공대 87), 장소현(미대 65), 고종성(사대 75), 세 분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황경순 교수는 "SUPERCOMPUTING을 통한 첨단 신소재 개발 가속화"에 대해 강연했다.

장소현 작가는 미술평론가의 주제는 "추상 미술에 대한 이해"였는데, "추상미술이란 무엇인가?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 한국의 추상미술과 단색화"에 대해 슬라이드로 작품을 소개하며 강연했다.

그는 "후원 봉투의 접수/기록 및 정리를 위한 스탭 관리, 은행 적립 /기금의 효율적 운영, 각 지역 동문/ 동창회들의 전화 소통 청취 및 문제점 의논, 후원금 구좌 특별 관리, 회보 발행 기사 수집 및 편집 참여, 임원/ 편집회의의 소집 및 회의 진행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며 하루를 성실과 열정으로 채우다 보니 한 주가 달라지고, 한달이 변화되고, 일년이 변화되어 마침내 미주동창회에 성장의 혁신이 일어났다"며 "본인도 미처 알지 못하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긍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대인,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내부에서 성장하여, 든든한 거목이 되고 기꺼이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는 동문들과 연합하여 모두가 바라던 운영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울창한 숲으로 변화 되어

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0개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들과 임원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참석한 박경재(문리대 74) LA총영사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박 총영사는 신용남 회장님과 새로 출범하게 될 제16대 회장님과 노명호 회장님께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서울대 출신으로서 좀 더 소외 계층에 신경쓰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2% 더 신경을 쓰며, 다른 대학교 앞에서 본이 되고 이끌어 가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홍선례(음대 70) 문화국장의 사회로 흥겨운 여흥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가라오케는 주훈(음대 69) 동문의 플루트, 색소폰 연주와 함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신용남 회장의 "남만에 대하여"로 시작하여, 박평일(농대 69) 동문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한효동(공대 58), 박혜옥(간호대 69, 전남가주 총동창회장), 송미선(음대 89, 홍보위원), 제영혜(가정대 71,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동문 등이 마이크를 잡으며 흥겨운 시간을 만들었다.

<홍선례 문화국장>

둘째날 - 환영사 및 사업보고 / 차차기 회장 선출

제28차 평의원 회의 둘째날 행사가 26일 토요일 오전 진행되었다. 연영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고가제장이 있었다.

대역사 동문들과 마주앉고 떡을 나누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며 "코로나로 1년반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떨치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음을 감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 도전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미주동창회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동문들을 격려했다.

다. 이후 회의록 제청과 함께 15대 임원단 소개가 이어졌다.

1부 순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한다.

■브레인네트워크 위원회 (하용출, 이강원 공동위원장)

2021년 3월 브레인네트워크 세미나를 '팬데믹 후 인류미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미주 동-서를 연결하여 소통의 장을 펼쳐자는 구호아래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다.

■SNU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손재욱 위원장)

지난 20여년간 역대 회장단의 활발히 토론되었던 주요 안건중, 하나는 동창회 재정자립위원회(Century Foundation)모금 및 관리였다. 15대 회장단에서는, 동 기금모금을 위한, 종신이사 등록 캠페인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10만불(다이하몬드 종신이사) & 두 분의 5만불(플래티넘 종신이사)을 포함한, 70여명의 신인 종신이사를 영입하였고 그에 따라 14대에서 인수받은 기금액을 더 늘려 12월 위원회 회의를 통한 안전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Fidelity 주식투자 회사의 대표적 상품인, Total Market Index Fund에 투자했으며, 2021년 전반기 약 10%의 수익율을 올려 \$82,000의 이익금이 생겼고, 재투자되었다.

■회보 편집위원회 (박정원 편집장, 이희만 편집고문)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총 200명의 필진이 동문 회보에 글을 기고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글들이 소개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동문 행사 소식은 줄었지만 동문들이 지면이 넘칠 만큼의 기고의 글을 보내주셨으며, 이 기간동안 편집부 또한 외부활동보다 회보의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



▲애국가를 재창하는 참석자들.

기획, 특집기사, 인터뷰 기사를 제작하기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 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족하다 싶은 분야가 있으면 직접 그 분야 전문가인 동문들과 contact해 글을 요청하여 마감일 전에 받아내기도 했다.

을 지원했다. 총 지원 금액은 모교 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을 더한 2만달러이다. (p13참조) 또한 4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 동창회의 회장들에게 연락을 해 학생들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참석한 모교 동창회 김종섭 상임부회장(왼쪽)과 이승무 사무총장

■나눔위원회(황선희 위원장)

2020년도 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는 홈레스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아가페 노숙자 교회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아가페 노숙자 선교회 (New Haven, CT) 아가페 선교 교회는 2002년 설립(유시영 대표), 예일대학이 있는 뉴헤이븐 일대에서 20번째 노숙자 사업을 하고있다. 나눔위원회는 올 봄 아가페 노숙자 사역교회에 \$1,000을 후원했다. 유시영 대표는 미주동창회 CT지부와 초대 동창회를 맡아 4년째 맡아 봉사하고 있으며 또한 미주 동창회 IT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특별사업위원회(백옥자 광고국장)

후원금 요청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힘든 1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준, 하기환, 손재욱, 백승원 동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동문 특별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정재훈 동문은 1만달러의 후원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후원, 업소, 광고 등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취소된 홈커밍데이와 크루즈 여행에 아쉬움을 전하며 내년에는 많은 동문들이 함께 가길 바란다.

■섭외/홍보(IT)위원회(유시영 위원장)

서울대학 미주 동창회 snuaa.org는 hosting회사의 full blown content management software, WordPress로 제작되어 있고 web의 41%가 이 Freeware로 운영되고 많은 사람이 Template과 수천개의 Theme을 만들어 site의 design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 Theme을 선정해 site를 만들면 그 design에 속박되어 있어 기본 기능을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Website관리를 위해서는 WordPress의 기본 지식위에 Theme의 구조아래 site의 전체와 여러 기능과 명령의 세부 지식을 터득해야 한다.

■장학모교발전위원회(신용남 회장)

2019년 홈커밍 데이에 학생처장님을 비롯한 몇 담당자 분과 재학생 미주 연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는 후속문제(비자 등) 때문에 수행을 미루다 코로나로 더 미루게 되었다. 하지만 올 3월에 모교에 다시 연락을 해 미주동창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이후 미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안내 받아 4명의 학생

<15대 회기 2차년도 주요사업보고(신용남 회장) <8면에 계속>

<7면서 계속>

1,175명 새 주소록 추가 - 14대 임기에서 전해 받은 미주동창회 주소록에서 추가로 새 명단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1년 반에 걸쳐서 여러번의 이메일과 연락을 통하여 정리했음, 일일이 옛 명단과 새 명단을 대조하며 삭제하고 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지난한 수 작업을 거쳐 업데이트 진행하여 놀라운 결실을 얻어 전체 명단에 30%를 증가했다.

2. 종신이사 추대 릴레이 전개
계속적으로 회보에 관련 기사를 성실하게 다루고, 홍보지를 작성하여 신고, 가입 이사들과 매번 소통하고, 종신이사중 발행하여 우송했다. 신문의 질적인 면이 향상되고 동창회 운영의 투명성을 감지한 동문들이 뜨거운 관심과 후원을 보내와서 임기 중에 70여명의 종신이사가 가입되었다. 고인이 되신 동문의 뜻을 받들어 11만불을 쾌척하여 고인은 최초의 다이아몬드 종신이사로, 본인은 골드 명예 이사로 가입하신훈, 또한 10여명의 종신이사가 silver에서 gold로, gold에서 platinum 등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여 기금 액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임기 중 종전의 40여만불을 85만불로 기금을 더블로 늘인 점은 큰 성과라 여겨진다.

3. 회보 기념집 발행 - 올 칼라, 540 페이지의 15대 임기의 회보 기념집이 발행될 수 있었음은 큰 기쁨이며 미주동창회 역사에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 일이 가능하게 동력을 실어주며 후원해 주신 Chu Family Foundation 추중광/허지영 고문 내외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15대 회기 2차년도 수입 및 지출 재무보고= 한정진 재무국장의 부재로 연영재 사무총장이 재무보고를 진행했다.

제15대 2차년도 감사 보고= 강호석 마이너하게 미흡한 상황으로 인해 감사보고서를 다음으로 미뤘다.

미교동창회 활동 사업보고(이승우 사무총장)
이회법 신임회장이 취임하면서 동창회는 공부하는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 동문들께 도움을 줄수 있는 동문회, 사회에 공헌할수 있는 동창회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지만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국내 동창회 활동은 물론 전세계 동문들이 다시 모이는 날을 기대한다. 특

별한 소식으로는 한국 동창회는 현재 이회법 회장 다음부터 회장 2년 연임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타토의안건(신응남 회장)

1. 회칙 조항에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는 비동문을 위해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돌아가신 남편(고 고광선)의 이름으로 11만 달러를 기부한 양남주씨를 명예 회원 겸 명예 종신이사로 추대하기 위한 신응남 회장의 동기가 있었으며 평의원들의 제청으로 수락되었다.

2. 3,000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낸 종신이사분들의 경우 회비(매달\$75)를 면제하자는 신응남 회장의 동기가 있었지만 과반수 부족으로 이 안건은 부결 되었다.

3.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양남주씨가 남편 고광선 동문의 유지를 받들어 10만달러 기부 중 원금을 제외한 배당금(이자 등)을 한국학 연구에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으로 16대 회기의 운영위원의 관리로 넘어가기로 했다.

4.윤상래 전 미주동창회장 발의 = 기금관리

위원회 회칙에 보면 기금에 쓰는데 보면 원금은 쓰지 않지만 평의원의 동의를 통해 쓸수 있다고 나와있다. 또한 거기에 나오는 이자는 회장의 자의에 의해 쓸수 있는 것으로나와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원금은 목표금액을 정한후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나오는 Dividend는 회장 자의가 아닌 기금관리위원회의 다수결 통과를 통해 동창회 운영에만 쓸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노명호 차기회장은 "주식투자는 위험성이 있다. Loss 책임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야한다"며 "회장은 도덕적인 책임하에 운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화연 전 회칙위원장은 이자나 이익금은 기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제안했다. 손재욱 전 미주동창회장은 목표금액을 15M으로 정한 후 이익금은 기금위원회 동의를 얻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병연 회칙위원장이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기에겐 졸속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고 윤상래 전회장도 이에 동의하며 결정을 회칙위원회의 다음 계획으로 미뤘다.

2부의 첫 순서는 젊은동문 유입을 위한 연구발표가 있었다.<P4.5 참조> 이어 차차기(제17대 회장) 선출에는 황효숙(사대 65)후보가 불출마 선언으로 이상강 후보가 17대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음은 김병연 회칙위원장 추천 인사 "이상강 후보는 1970년 의대, 뉴욕 Resident, 1987년-2015 오크라호마 개인병원, 2014-2015년 하트랜드지부 회장, 종신이사를 지냈으며 사회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상강 후보는 정경발표에서 "제 16대 노명호 회장과 각 지부 방면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계획"을 밝히며 후원에 주신 동문님들과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7대 회장단 임원들이 소개되고 있다.

신응남 회장은 이임사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미국땅에 정착한 동문 여러분 동창회 회보를 통해서 끈끈히 연결되었던 지난 2년간 이었다"며 "인수 받은 2019년 7월달에는 5,700명에서 민수기 역경을 통해서 1,700명 동문을 더 발견하고 database에 입력함으로써 저희들을 연결해 주는 미주동창회 회보가 그 해 Mail Box에 전달되면서 동문님들이 미주 동창회와 연결 고리를 맺는 작업을 지난 2년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제 그 열기로 동창회 회장 서울대 클럽에 설립이 될때까지 저희들 앞에 펼쳐지는 장대한 여러분들의 비전을 쉽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큰 꿈을 위한 동문들의 간절함이 한데 모여지길 기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2년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한 15대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리며, 열성과 성원으로 후원해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제 16대 회장단에게 동창회기 인계되었으며 제 16대 미주동창회 노명호 회장이 취임사에서 먼저기초를 잘 세워 주셔서 전임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했다. 노 회장은 "특별히 15대 신응남 회장의 노력으로 동창회가 많이 정립되고 종신이사님들도 많이 증가해서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Fund Raising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미주 26개 동창

회와 모교 총동창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젊은 동문들이 리드하며 더 많은 동문들이 소동하며 젊어지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쓸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과 평의원들이 앞으로 미주동창회를 많이 격려해 주고 또 동창회 운영과 진로에 관한 의견이나 충고를 많이 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후 순서로 노명호 회장의 16대 회장단 사무총장 인준 감사 선출 및 인준이 있었다. 강호석 사무총장과 김경무 감사가 인준 되었다. 이어 제 16대 회장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노명호 회장의 안내로 제 16대 회장단 임원단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신임임원단이다. 사무총장 강호석/편집장 신복레/ 총무국장 이호진/ 부총무 송미선/ 재무국장 이윤정/ IT위원 박동천/ 문화및 광고국장 홍선례/문화위원 박영구/홍보국장 김자성/섭외국장안혜정/후원회장 서지원/ 감사 김경무/ 자문위원장 김병연/ 자문위원-성주경, 최진석, 김인중 임원단 소개 후 사회자가 폐회를 알리며 2부 순서가 마무리 되었다. 3부 순서는 강호석 신임사무총장의 사회로 평의원 회의 개최 축하 만찬이 있었으며 노명호 회장, 신응남 전 회장, 최홍준 남

가주 지부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회법 총동창회장(한국),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으며 총장 공로패, 총동창회장 상패, 신응남 미주동창회장 공로패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뒤이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최준 교수의 학교 소개 및 발전기금 소개가 있었다. <백옥자 조직국장>

축하공연
이 음악회는 특별한 음악회였다.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오시는 날, 가시는 분께는 꽃가루 대신 음악을 뿌려 드리고, 오시는 분께는 꽃다발 대신 음악을 안겨 드리기 위한 공연이다. 첫 번째 순서, 바이올린 주일엽(음대 73)과 플루트 최혜성(음대 99) 동문이 연주한 곡은, Antonio Lucio Vivaldi 작곡의 Duo Concerto in D Minor. 소프라노 박선우(음대 13)의 O mio babbino caro From Gianni Schicchi. O mio babbino caro는 Gianni Schicchi에 나오는 아리아이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 받으려는 딸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노래이다. 박선우 동문은 폭넓은 성량과 감성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제갈소망(음대 02) 동문의 피아노 솔로, Widmung(현장)은 R. Schumann이 아내

클라라를 위해 작곡한 가곡을 F. Liszt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했다고 한다. 제갈소망 동문은 여러 때 처음 박력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다음은 주일엽 동문의 바이올린 솔로, Brahms 작곡 Hungarian Dance No.5, 경쾌한 멜로디와 리듬을, 주일엽 동문이 섬세하고 날렵하게 연주했다. Vittorio Monti의 Czardas. 비토리오 몬티가 향가리 민속 무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곡이다. 슬프고 무거운 선율로 느끼게 시작되어 전환점에서 열정적인 멜로디를 보여 주다가 후반부에서 격정적으로 강렬하게 끝난다. 최혜성 동문의 플루트 솔로는 Francois Borne 작곡의 Carmen Fantasy on Themes From Bizet's Carmen. 이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등장하는 음악들을 사용하여 쓰인 작품이라고 한다. 테너 이규영(음대 03)은 김호근 작곡 "첫사랑"을 불렀는데, 장내를 가득 채운 우렁찬 음악에 모두 매혹되었다. 마지막 곡, Congraturation. 소프라노, 테너, 그리고 플루트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한데 어우러진 연주에 청중들은 모두 흥겹게 춤을 추며 평의원 회의 두번째 날 순서가 모두 막을 내렸다. <홍선례 문화국장>

제30차 평의원 회의 화보



이상강 차기회장(가운데) 당선 후,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왼쪽), 신응남 전 회장(오른쪽)



이병준 3대 미주동창회장(오른쪽)이 총장을 대신해 오인환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노명호 신임회장(오른쪽)에게 축하를 건네는 김중섭 한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제30차 평의원회의의 성공적인 폐막을 알린 음악회. (왼쪽부터)최혜성, 주일엽, 박선우, 이규영



Break시간 담소를 나누는 참석자들.



공로상 수여 후,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오른쪽). 수상자들 (왼쪽부터) 문현호 총무국장, 정상진, 민일기(박창규 대리), 연영재 사무총장.



한자리에 모인 여성 동문 및 관계자들.



한국에서 평의원회의의 개막 축하 메시지를 전한 오세정 총장.



만찬을 즐기는 박경재 LA총영사(맨앞), 김중섭 상임부회장, 이승무 사무총장, Mrs 노, 노명호 신임회장, 이희만 편집고문.



공동 진행자 연영재 15대 사무총장과 강호석 16대 사무총장.

# 필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작은 음악회

## 이성숙 신임회장 취임... 신응남 미주동창회장 참석, 서재필 재단 후원금 전달



이성숙 신임회장

지난 6월 5일,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정기 총회 및 만찬과 작은 음악회가 Calvary Vision Church Auditorium에서 열렸다. 50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모처럼의 만남으로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뉴욕에서 온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내외분과 김용욱(문리대 56) 교수가 참석했다. 일찍 나와 등록을 맡아 수고하신 이종태(사범대 71) 신임 수석 부회장, 지면으로만 보였던 김현영(수의대 58)동문, 핑크색 셔츠를 입으시고 참석하여 분위기를 환하게 하신 정홍택(상대 61) 동문 등 뜻 깊은 년중 행사를 갖게 되었다.

지흥민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필라지부 2021년도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선 후배동창회원과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pandemic으로 지난 15개월 우리모두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때에 여건이 허락되어 오늘 총회로 모일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기다림과 만남의 기쁨을 공유하며, 그 너머에 있는 모교사랑과 동창애 그리고 우정을 나눌수 있는 교감과 인연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문학자이시며 시인이셨던 고 피천득 교수님은 인생과 인연을 다음과같이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웃 기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대를 졸업한 인연으로, 또한 필라 인근 지역에 사는 동창의 일원으로 서로 만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



들어 가지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말했다.

신응남 총동창회 회장은 축사에서, "필라델피아 지부의 제한된 동문의 숫자의 어려움을 딛고, 미주동창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보여주시신 헌신과 후원에, 전직 회장단과 함께 현 지흥민 회장단과 임원동문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장의 바티를 받아, 지부 동창회를 이끌어 가실, 이성숙 자기회장단의 힘찬 항해를 응원합니다. 회비 납부 면에서, 15대 1 차연도에 이어, 2차 년도에도, 50여 동문의 참여로, 전체 180 동문 숫자 대비, 약 30%의 실적을 보이며, 평균 13% 납부율에 2배의 후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기원전 1세기를 살았던,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키케로는, 아테네에 유학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의무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 : 우리는 혼자 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부는 조국의 것이다, 또한 다른 일부는 친구의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조직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다"라고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며, 지켜야할,

가족, 사회, 교회, 국가 그리고 동창회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전통을 유지해 가시는,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지흥민 회장의 환영사, 신응남 총동창회장의 축사 이후 민홍식(수의대 60) 전회장이 후원한 지부기 헌정, 유미영(음대 87) 부회장 사업보고, 김진우(공대 62) 재무 국장의 재무보고, 조정현(수의대 58) 전회장 감사패, 신응남 총동창회장 기념패 증정에 이어, 신임회장 이성숙(가정대 74) 동문의 취임 인사와 신임 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성숙 회장은 "필라주위에 80학번 90학번 동문이 40여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회장님이 잘 세워 놓으신 토대 위에서 젊은 동문들 유치에 노력할 것과 신나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2021-2022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성숙(가정대 74), 수석 부회장 이종태(사대 71), 부회장 유미영(음대 87) 재무국장(김진우(공대62) 고문 손재욱(가정대 77) 주필 정홍택(상대 61) 감사 주기목(수의대 68) 이번 총회 하이라이트는 작은 음악회라고 할 수 있었다. 유미영 부회장은 활기차고 재치있는 사회로

음악회와 경품 추천 행사를 주관 하였다. 음악 프로그램은 Baritone 하태규님, Soprano 심희진(음대 90, Mezzo Soprano 김미순(음대 86), Flutist Hannah Silverberg, Piano반주 소영미님이 수고하였다. 다양한 선율과 아름다운 음색들이 우리를 음악에 깊이 빠져 들어 가게 하였다. 특히 김미순(음대 86) 동문과 그의 딸, Hannah Silverberg의 Une flute invisible by C. Saint-Saëns 연주는 한 포기의 그림같이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6월6일 아침 지흥민 회장 내외분, 이성숙 신임회장은 서재필재단 최정수회장의 후원과 안내로 새로이 준공한 기념 교육관과 인근 미디어 타운 로스 가든에 위치한 서재필 기념비를 탐방하였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발한 활동 상황을 직접 들으면서 서재필 기념관이 우리 차세대의 훌륭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을 볼 수 있었고 유익하고 즐거우며 기억에 남는 하루의 일정을 마쳤다. 지흥민 회장은 서울대 총동창회 신응남 회장을 대신하여 최정수 회장에게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 하였다.

<글:사자 필라지부 제공>



신응남 미주동창회장



작은 음악회



총회 만찬



총회 만찬



서재필 기념관 앞에서

### 종신이사추대



##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자 (간호 74)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중고 졸업, 서울 간호대 74년 입학. 졸업후 1979년 미국 오레곤으로 이민해서 간호사로 일하며 의대 입학을 준비, 오레곤 주립 의대 졸업 뒤 내과 수련의를 거쳐 전문의로 오레곤, 알라스카와 시애틀에서 30여년간 일했다. 지난 17년 동안은 시애틀에 위치한 버지니아 메이슨병원에서 하스피탈리스트(병원 주치의)로 일하다가 올 초에 은퇴했다. 이민 초 간호사로 일하며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남편의 공부를 내조하며 장래 의사로서 준비하는 토대가 되었고 후에는 병원 환자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지역의 무료진료실과 의료선교에 봉사하며 다음세대 의료인을 지원하고 있다.



임천빈 (문리 61)

1942년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ROTC 3기, DMZ 소대장으로 군복무했다. 1968년 평화사절단(Peace Corp)으로 도미. SDSU에서 회계학사 및 MBA 취득했으며 1996년 USIU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텔, 홀마크 카드, 시에라 파드레일 등 30개의 비즈니스 운영, 호텔과 상가 등 50여개의 부동산

트랜잭션을 성사시키면서 크게 성공했다. 퇴역군인을 위한 시설에 100만 달러 후원을 비롯해 한인커뮤니티 각 단체에도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쳤다. 샌디에이고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한인회 이사장 역임했으며 32대, 33대 한인회 명예회장을 맡았다.



고한창성 (문리 57)

고한창성 동문은 1966년 플라이트 장학생으로 도미 후, 1978년까지 동화(Donghwa) 통신 뉴욕특파원과 합동통신사 유엔주재 특파원을 역임했다. 합동통신사 재직시, 한국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구소련을 방문, 취재하기도 했다. 1981년 일시 귀국하여 합동통신사 외신 부장을 지내신 후, 1984년 다시 도미 하셔서 1989년까지 합동통신사 미주지사장으로 활동했다.

1989년 KPA를 설립, 운영했다. 그는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제23대 회장직도 역임했다. 고한창성 동문은 지난 2013년 작고했으며, 아내 한경원 미망인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미주동창회로 종신이사비를 보내왔다.



# 폭우도 막지 못한 기쁨과 열광의 시간

## 시카고 동창회 하계야유회... 우천에도 140여 동문 참여 성료

지난 6월12일(토요일)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하계 야유회가 Busse Woods 공원(Rolling Meadows, IL)에서 열렸다. COVID-19으로 인해 함께 만날 기회가 없었던 많은 동문들이 쌓인 회포를 풀며 시작된 행사는 예상보다 많은 140여 동문과 가족이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점심 식사 후 맑은 날씨가 갑작스레 폭우로 변했으나 트로트 노래 배우기와 댄스, 빙고, 젊은 동문들의 스페인어 노래 발표 등이 어우러지는 여흥시간의 즐거움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아마존 정글의 폭우갈던 비를 동문들은 가을었던 땅 위에 내리는 축복으로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 보냈다. 이번 야유회에는 1947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 입학 동문이 참여함으로,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문회의 폭 넓고 다양한 성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단합의 장이었고, 모두 행복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김윤하 시카고 동창회장(공대, 66)은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은 언제든 많이 환영한다. 함께 나가자"고 부탁했다. 이날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은 메시지로 "미주 동창회 26개 지부중 가장 활동적이며 동문 선후배간의 경조사를 챙기고 돈독한 우애를 다져가는 시카고 지부 동창회를 보며 무한한 존경을 보내드린다"며 지난 2년간 15대 미주 회장단에게 보내준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야유회 행사 후원금(\$500)을 지원했다. 시카고 동창회의 야유회를 전후해 동문들이 격려하고 논평하신 글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성황리에 야유회를 마치게 하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원진의 빈틈 없는 준비와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식사, 그리고, 잘 계획되고 진행된 여흥순서들 모두 훌륭했습니다. 친구 원인숙 동문의 내조 또한 돋보였어요. 오랫동안 모여 야외에서 즐거운 한나절 보내시는 동문님과 가족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윤봉수(간호 69)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동문 모두 행복하며 즐거웠습니다." - 장기남(문리 62)

"지난 주 토요일 (6/12) 실시된 SNUAA-Chicago 야유회를 준비하는데 임원들의 큰 협조로 성공리에 끝남에 감사합니다. 많은 동문들을 1년 반 만에 만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관악 Club 동문들이 적극 참석하고 Entertainment를 담당해 준 점은, 노력화되는 동창회를 항상 격정하는 나로서는 시

카고 동창회 전통을 이을 젊은 세대들을 보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용락(공대 48) 야유회때의 사진을 많이 찍어 주신 홍청일(약대, 57), 동영상을 찍어 주신 김수현(생활과학대, 98)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편집하며 시카고 동창회 Web Site에 더 많은 양질의 영상을 올리기 위하여 김호병(상대, 69) 동문과 노력하고 있다. 종종 www.snuachicago.org를 찾아 확인해 주고, 혹시 개인 사진들 중에서 Web Site에 삭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윤하(847-707-8502, snuachicago@gmail.com) 또는 김호범(312-497-3007) 동문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번 시카고 동창회 야유회의 사진과 동영상은 본 동창회의 web site인 snuachicago.org에서 감상할 수 있다. <기사, 글:시카고 동창회 제공>

# 총회·건기대회·장학사업 등 활발한 활동

지부소개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심리75)  
캐나다 지부 회장

캐나다 밴쿠버 지부는 1991년에 창립되어 현재 209명의 회원이 등록해 코로나 사태 전까지 매년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기 행사로서는 7월의 하계 야유회, 9/10월 추석의 밤 행사, 그리고 12월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있고 그 외에 골프모임, 등산모임, 리버락 점심모임 (월) 및 스탠리파크 걷기모임(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BC주정부 및 캐나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인 SNUA 밴쿠버 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꾸준히 지역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17대 회장이던 독자적인 SNUA 밴쿠버 지부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2019년까지 동문들의 참여와 소식전달에 기여하여 왔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해부터는 네이버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모임과 이벤트들이 정상 활동을 못하고 있거나 좀 미흡으로 대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7기의 회장단으로 장희순 회장(73학번), 석윤규 재무(91학번), 황보영만 총무(76학번) 등이 선임되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에 따른 공백을 밴쿠버 지부 동창회보를 다시 제작하여 동문들의 참여와 소식 전달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허락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리며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열린 서울대학교 동문회 밴쿠버 지부 송년회

◀장학금 수여에 참여한 김승범동문(왼쪽부터) 박형빈 학생 박규영 학생, 이현경 학생, 이정일 이사장, 박나연 학생 대리, 안복신 동문, 석윤규 동문.



##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옥균(공대 58)



김옥균 동문이 지난 5월 17일 소천하셨다. 김 동문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도미,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 Texas Instruments 회사에서 RF Engineer로 7년간 근무했고, 1981년에 Lone Star Electronics 회사를 인수 받아 주로 Motorola 회사에 안테나 납품으로 30여년간 일했다. 슬하에 부인과 아들, 딸 및 7명의 손주들이 있다.

(고) 김원경(약대 59)



지난 5월 3일 김원경(약대 59) 동문이 81세로 소천하셨다. 김원경 동문은 1939년 9월 20일 출생하여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국제약품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했다. 1972년 도미하여 Wyoming에서 약학대학 졸업 후 Savon Drug Store에서 Pharmacist로 근무하다 Retire 했다. 지난 6월 1일, 장례식이 나성한미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유가족은 부인 황춘자씨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고) 배재호(공대 58)



배재호 동문이 지난 2월23일 소천하셨다. 배 동문은 서울공대 화공과를 1958년에 입학하여 1962년 졸업, 1963년에 도미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Gulf Corporation에서 일했으며, 그 후 Chevron Corporation에서 33년간 Chemical Engineer로 근무했다. 2006년 Department of Energy로부터 IOR Pioneer Award를 포함한 많은 상을 받았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윤경자(음대 62)씨와 삼남매 그리고 일곱 손자 손녀가 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미주동창회 최초 모교 재학생 미주 연수기회 지원 장학생 4명 선발...2만달러 후원

미주동창회는 지난 4월 5일 모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학생의 미국내 대학에서 단기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의 인턴기회 제공에 2만달러를 후원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4명의 장학생이 최종 선발되어 명단을 미주동창회로 보내왔다.

선발된 장학생은 설재민(국어교육과/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심여진 (경제학부 / Rice University), 우다현(영어교육과/ Stony Brook University), 임다빈(사회교육과/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동문이다.

장기 해외 연수가 처음이라고 말한 설재민 학생은 "비교문학을 배우고 싶다는 학문적 열망과 어학연수에 대한 갈증은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자는 미주동창회의 정신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리라 확신한다"며 좋은 기회를 준 미주동창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심여진 학생은 "비싼 물가와 기숙사비 등 재정적 문제에 관한 고민이 많았는데, 미주동창회 덕분에 훨씬 마음 편히 교환학생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우다현 학생은 하지만 부모님의 사업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으며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학생 파견을 포기하려 했다고 하며 "희망을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다빈 학생 또한 졸업 후 미주연수까지 가고 싶었던 교환학생을 갈수있게 해준 미주동창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설재민



심여진



우다현



임다빈

## 산업혁명이후 음악예술에 미친 과학과 공학

### 시애틀 SNU포럼... 전 서울대 교수 정호 박사강연

시애틀 지부 SNU Forum의 6월 세미나가 6월12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다.

이번 6월 세미나의 주제는 "과학과 음악: 산업혁명이후 음악 예술에 미친 과학과 공학"으로 전 서울대 교수 정호 박사가 강연했다.

정 박사는 Argonne 국립연구소에서 26년간 선임연구원 및 Project Manager로 경력을 쌓은후에 Industry로 옮겨서 10여년간 연구활동을 계속하던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후 대구과학기술원(DGIST) 및 모교 서울대에서 초빙연구교수로 10년 가까이 근무한 동문(공대 62학번)이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그에 의한 산업혁명은 문화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끌

었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 예술" 분야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음악예술의 내용, 형식과 구조,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한 기구(Instrument), 표현 방법(Performance), 전달 방식(Delivery system), 저장 및 표출(Storage and Retrieval), 인지 및 인지 훈련(Cognition and Acquisition Training) 등을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과학 및 공학기술 개발 및 혁신은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즉,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형으로 가고 있듯이)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후 참여 동문들과 질의응답, 의미있는 토론과 대화를 나누며 강연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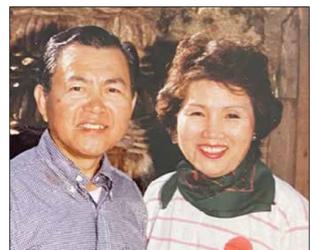
## 고 염극용 동문 미망인, 나눔기금 후원

### 신영희씨 "생전 남편 뜻 받들어 기부"

지난해 12월 소천한 고 염극용 동문의 미망인 신영희씨가 미주동창회에 남편의 이름으로 \$2,000달러의 후원금(나눔기금)을 보냈다.

신씨는 "떠나신 분이 늘 마음으로 원하던 바는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 왔지만, 남은 생애에는 좀 더 남을 위해 소외된 필요로 하는 곳에 의료 사역으로 사랑을 베풀고 싶은 소망대로 그의 매해 캔나 등, 여러곳으로 보람된 시간을 보냈음을 늘 감사해 했다"며 생전에 자녀들에게는 "Walk with the KING"의 교훈을 강조하며 하남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강조했다

고 염극용 동문은 서울 의대를 1960년 졸업,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후 1965



생전의 염극용 동문과 부인 신영희씨

년에 도미하였다. 필라의 Lanckenau 병원에서 일반외과 resident, 전문의 등 50여년을 근무했다.

## 책 소개

# "I will work for nothing"



임천빈  
(문리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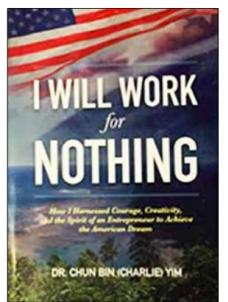
친구들이 모두 직업 찾기를 포기할 때 나는 "I will work for nothing" 이라고 외쳤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임천빈(문리 61) 동문의 저서 "I will work for nothing" 는 책 제목이 되어 지금도 아마존에서 팔린다. 친구들이 직업 찾는 것을 포기할 때 그는 자신을 포기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했다. 그것이 신용이 되어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후 그는 신용으로 가게를 실패한 끝에 인수하여 성실과 근면으로 사업을 키워 불과 1년만에 2~3배의 이익

을 올렸다. 또한 홀마크 카드 독점권을 얻어 10개의 가맹점을 경영하였고 15개의 물을 세웠다.

"적은 돈은 노력해서 벌고 큰 돈은 신용으로 벌어야" 어느 창업주의 말이 생각났다. 불황이 닥쳐 어느 사탕물대 한 곳을 제외하고 폐점이 속출하여 투자자들이 아무도 그 물을 거둬서 보지 않을 때 그는 그 사탕물을 싸게 구입해서 1년간 렌트비 공짜, 1년 후 렌트비 스퀘어피트당 50센트의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비어 있던 가게를 모두 채웠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받은 이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는 매년 SDSU와 UCSD에서 초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영감 강연(Inspiration Speech)을 한다. 그는 항상 "마음가짐이 전부"라고 강조하면서 "항상 낙관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에 임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의지와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면 평화를 얻습니다. 행복과 만족도 함께 따라옵니다"라며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는 1986년 설립된 국립민족연합(NECO)의 Ellis Island Medal of Honor을 받았다. 귀



화한 미국시민 중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매년 선정해 수여하는 메달로, 한인으로는 임 박사가 처음이다. 임 박사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남은 인생도 화합하고 상생하는 한인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뉴잉글랜드 동창회, 19대 김유경 회장단 출범

## 동문 50여명 참석... 온라인 정기총회·장학금 수여식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김정선, 문리대 66)는 지난 6월 12일 토요일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지고, 19대 새 회장단 (회장 김유경, 음대 72)을 출범시켰다. 비대면 줌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50년도 학번 대선배부터 2000년대 학번의 젊은 세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까지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선 회장의 개회사와 국민의례로 시작된 총회는 미주 동창회 신임남 회장의 축사 후, 장학금 수여식을 중심으로 한 1부와 연례 업무보고, 이사 선출, 차차기 회장 선출을 중심으로 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 있었던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뉴잉글랜드 지역의 우수한 학생 4명이 이영인(사대 74) 장학위원장의 사회로 각 후원자로부터 장학증서와 장학금(\$2,000 - \$2,500)을 전달 받는 순서를 가졌다. 선발된 장학생과 후원자는 다음과 같다. 권병진, Wellesley High School: Susan, Helen, & Beth Lee, 김용구(공대 66) 이영서, Lexington High School: 이의인(공대 68), 최홍국(공대 69) 박민주, Berklee College of Music: 윤상래(수의 62) 김용구(공대 66) 백현선, New England Conservatory: 정선주(간호 68) 박영철(농대 64) 이후 특별히 수상자 백현선, 박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며 이영서의 태권도 3단 시범 비디오, 권병진의 Science Olympiad 이야기는 시상식을 빛나게 해주었다.



또한 Susan, Helen, & Beth 세 자매는 아버지 고 이재신(공대 57)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장학사업을 후원하기로 해서 장학금 전달식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어서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김선혁(약대 59), 김용구, 이영인, 이강원(공대 66) 등 4분에게 감사패를 전했다으며 2021년 6월 25일 LA에서 열리는 미주동창회 30차 평의원회에서 수상을 하게된 세 분에 대한 소개가 간략히 있었다. 수상자는 서울대총장 공로패 수상-학술상-김광수 교수(자연 73);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패-공로상-김정선(문리대 66),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패-참여성, 정

선주(간호대 68) 동문들이다. 2부 순서는 일년간의 업무보고로 시작되었다. 펜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여러 사업을 수행했는데, SNUAA-NE website 도메인 및 웹페이지 구축, 영구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설치 및 관리, 장학 사업 확대, 동문과 교민사회를 위한 뉴잉글랜드 포럼 행사, 미주동창회의 사업에 참여, 동문 주소록 및 e-book 발간, 산우회 활동등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이 만기가 된 8분의 재임, 두분의 신임 이사를 인준하고, 감사 인준, 장학위원장, 회칙위원장 선임을 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 추천된 차차기회장 임영호 동문(공대 72)을 선출,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김



박민주 조수아권



백현선 이영서

제성(공대 87) 동문의 재무 보고와 김선혁 감사의 감사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하였으며, 윤상래 장학기금관리 위원장의 장학기금 현황 보고와 회칙위원장 김경일(공대 58) 동문의 이번 회기에 제정된 세칙에 대한 요점 설명이 있었다. 18-19대 회장단 인수 인계 순서를 가진 후, 신임회장 김유경(음대 72)의 인사말과 새회장단 소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원 동정, 공지 사항을 나누고 교가 제창과 함께 총회를 마감했다.

# 뉴욕 간호대학 총회·야유회 개최

## 김은희 회장직 연임... 미주동창회 기념품 증정

지난 일년 반의 기간동안, 모든 다른 행사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년이상 회동하지 못했던 서울대 뉴욕 간호대학 모임이 총회와 야유회를 겸해서 지난 6월 16일 수요일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ALLEY POND PARK에서 있었다.

유월 중순에 접어든 날씨도 모임을 축하하는 듯 화창하였고, 팬데믹이 물러난 거리에 사람과 차가 많아져 도시는 다시 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다. 임원진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과 커피 등 디너를 나누며, 선후배 간에 그동안 밀린 안

부 등 이야기를 나누며 질겨져가는 녹음 속에서 초여름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그동안 총무로 수고해 오던 박경숙(72학번) 동문의 병환 소식을 접하고 모두 한결같이 안타까워하며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지난 일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점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일년 동안 비활성화 되었던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을 기대하며,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현 회장인 김은희(71학번)동문이 일년 더 수고하는 것에 모두 찬성했다. 멀리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저지, 스테



▲총회/야유회를 준비하는 중, 미주동창회 오피스를 방문한 김은희(왼쪽) 간호대 회장에게 기념품 백과 컵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신영남 미주동창회장. ◀뉴욕 간호대 총회겸 야유회 사진.

이트 아일랜드에서도 여러 동문들이 참석하여서, 그간의 경험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오늘의 모임이 여러 어려움으로 움츠러들었던 그 동안의 힘든 시간을 잊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리가 되어 동문들은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고 작별을 나눴다. 특별히 오늘 모임을 위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신임남 회장)에서는 기념품으로 각 동문에게 bag 과 coffee cup을 전달하여 소박하지만 푸짐한 행사가 되었다. <기사, 사진= 간호대학 제공>



# 미간호협 뉴욕주지부수여 공로상 윤인숙 동문 수상

윤인숙(간호 63 · 사진) 동문이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뉴욕주지부가 수여하는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5일 미국간호협회 뉴욕주지부에 따르면 플러싱병원(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인숙 간호과 컵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신영남 미주동창회장. ◀뉴욕 간호대 총회겸 야유회 단체사진.



이트 아일랜드에서도 여러 동문들이 참석하여서, 그간의 경험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오늘의 모임이 여러 어려움으로 움츠러들었던 그 동안의 힘든 시간을 잊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리가 되어 동문들은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고 작별을 나눴다. 특별히 오늘 모임을 위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신임남 회장)에서는 기념품으로 각 동문에게 bag 과 coffee cup을 전달하여 소박하지만 푸짐한 행사가 되었다. <기사, 사진= 간호대학 제공>

/ 정치 칼럼 /

# 미국의 양당정치, 어떻게 보아야 하나? ①

### “미국을 바로 보고, 바로 알자”



김해암(의대 52)

미국은 근년에 혹독한 민주주의 시련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로 시작한 행정의 혼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능 하지만 미숙한 정치 경험으로 비롯한 행정의 차질과 완고한 보수파에 의존하는 강력한 지휘능력, 그리고 예리한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하면서 차질과 실수를 덮어 버리는 기만과 질타로 일관하는 정치 풍토는 전례없는 미국의 정치 행정을 세상에 뚜렷이 내놓고, 대선에 탈락하며 중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바이든 정부는 차분하고 정열적으로 지나간 정치 차질을 만회 하기에 바쁘다. 정치 이상과 실천의 갈등이 왜 21세기에 와서 더욱 벌어지고 있나, 살펴보자.

먼저 꼭 알고 시작 해야 것이 있다. 미국의 양당 정치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한국 정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민주당은 많은 파벌이나, 특수한 이익을 도모하는 진보적 그룹으로 형성된다. 2020년 선거 준비기간 근 1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중합토론을 한 것을 기억하면,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주의 주장을 보여 주지만, 공화당은 일사분란한 조직이다. 트럼프를 대적 할 공화당원이 없었다. 없다가 보다, 감히 도전 할 인물이 없었고, 있었다 해도 당이 인정 하지 않으면 무자격이며 공화당 추천 받기는 생각보다 어렵고, 기성세력의 간부나 신인의 경우, 당에 충성을 맹세하고, 기부금을 내고 당 원칙을 믿고, 따라야한다. 대표적인 단체를 든다면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와 같은 기관인데, 민주 국가를 보호 하는데 있어, 시민 개인의 총기 소유와 무장이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4월 한달 동안에 미국내에서 각종 총기 판매 수가 1.8 million 이었다고 뉴욕 타임즈는 보도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무기의 대부분이 백인들의 신변 보호용으로 구입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 살상의 대부분이 백인들인 것을 보면 일단 유사시에는 보수적 백인들이 총 들고 일어 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 할 수 있다. 공화당의 지도자가 미쳐서 그러다만 모르지만 당의 지도층의 일사분란 한 영도력이 지배 할 때 정치를 떠나면 모르지만 붙어 있으면 당에 충성하고 지시를 잘 따라야 하니 공화당원이 공천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민주주의 현실:** 세계의 어느 정치제도가 완벽하나? 아무리 둘러 보아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앞질러 가는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나라들이 자 그들의 풍토, 문화 그리고 전통에 합당한 정치 방식을 창출하지만 하나같이 급속히 발전하는 문화와 디지털 테크노로지를 견주

어 거머 발돋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결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려내려고 온갖 힘을 동원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 의 폭정 아닌 난폭하고 유치한 정치를 민중의 시위나 폭력으로 가 아니고, 민주당은 언론과 설득으로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여 당당하게 선거로서 정권을 바꾸는 일에 성공하였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의 월남 전쟁에 반대 하는 대규모의 군중 데모와 반항에 비하면 너무도 성숙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시련이 실패로 돌아가고 트

를 공유한 공화당이였다. 선거에 패 하자 트럼프는 공화당과 선교 개신교파를 비난 하기보다 투표가 잘못 되어 좌파세력이 훔쳐 갔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을 보니 선거 상황 판단을 잘못된 공화당 주동과 부효교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억지 설명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그런 사태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100일이 훨씬 넘은 오늘에도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태를 보다 못해 트럼프가 저지른 사태가 1-6-21 에 일어난 우익계 폭도들의 미국 의사당 침범이다. 이상하게도 트럼프의 당시의 의도를 양



지난 1월 6일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

럼프가 재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찔한 정권 위양을 겪으며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시련을 겪어 나가야하며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신념이다. 이번 선거 만큼 미국의 지식인들이 단결하여 일사분란 하게 치열한 선거전을 벌린 것은 처음이고, 또 역사에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사활이 달려 있었던 2020년 선거는 사상 최대의 투표자가 참여했고, 다수표로 당선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리라는 전망은 좋았고, 공화당이 2016년도에 비해 월등한 다수 표로 재선 된다는 자부심이 감돌았으며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 위치를 유지 했으나, 트럼프는 여론 조사, 정치 평론들이 돌아 가는 것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지지하는 공화당 조종자를 믿으려 했다. 이렇게 과거에 있던 앵글로 위주의 보수 세력이 살아 있다고 보고, 선거의 결과가 비등하게만 나오면, W.Bush의 2000년도 선거 모양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

당이 다같이 외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트럼프는 폭도를 동원하여 의사당에 들어가 상하원 공동으로 선거 결과를 인준 하는 법적 절차를 못하게 교란 시키려는 의도였다. 트럼프는 자기가 지켜 오던 부통령, Mike Pence 가 상하원 합동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도들의 위협에 놀려 선거 결과 인준을 무효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폭도들을 핑계로 인준을 연기하는 방법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당의 합동 의사를 진행시킨 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재빨리 인준을 해낸 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피신하게 되었다. 만일, 그 과정이 한 시간이라도 늦었으면 선거 결과 인준이 늦어지고, 더 큰 양당의 투쟁이 벌어져 유혈행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중대한 반란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아직도 양당 정치를 옹호하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만 미국의 여론이 아직도 편파적이고 역사성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글을 올린다. 나의 판단이 옳아라거나, 틀렸다면 지적 해 주시기 바란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여론이나 한국 모양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

지 거짓 말을 둘러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내지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막은 공로는 인정해야 마땅하고, 지식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막고 선거에 중점을 두게 함으로써 공화당을 제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지식인들이 여론과 헌법 준수의 양심으로 미국의 선거를 공정하게 계속하여 지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큰 의문점이고, 민주주의의 의장대를 우려하는 바 크다 못해 트럼프가 저지른 사태가 1-6-21 에 일어난 우익계 폭도들의 미국 의사당 침범이다. 이상하게도 트럼프의 당시의 의도를 양

그러면 한국계 미국인에게는 어떤역할이 필요한가? 살펴보자. 우리는 미국의 정치에 익숙하다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영향을 주어 온 미국의 정책이나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통하여 많은 것을 한국인은 배워 왔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제도가 때로는 낭비버리 그리고 지연과 비효과적 산물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 왔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회를 보라. 그러면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자식들을 키우고 적응 해 온 한국인은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키워 갈 수 있을까? 늦은 감이 있으나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미국 정치에 참여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 한국은 반세기 70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성장하였다. 미국의 정치는 "미국 일방적 정책" 이었던 트럼프 정권에 이어 "Multi-lateral Policy" 로 모든 가능성을 참작 한다는 기치 아래 공정을 기한다는 바이든 정책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 야 할 때라고 본다. 예를 들면 미국, 일본과 한국 3국을 통합하는 방위체제를 구축 하자면 무엇부터, 누가 시작 해야하나? 등 문제를 생각할 때 한국은 3국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한국이 주도한다면 미국과 일본에게 어떤 역할을 매길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한일 양국관계를 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여러 문제를 갈라 놓고 다루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본다. 공동 방위, 통상문제, 북한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납치 문제, 위안부 문제등 갈라 놓고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현 미국 정세 판단을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해 보자. <다음호에 계속>

# / 6.25 특집 / “16살때 함흥서 월남... 꼭 다시 가보고 싶어”

## 한만섭 동문 저서 ‘함흥, 사진으로 보는 전쟁과 재건의 역사’



저자 한만섭(공대 49) 동문이 고향 함흥의 자료와 사진을 정리, 재독교포인 신동삼씨와 공저로 ‘함흥, 사진으로 보는 전쟁과 재건의 역사’ (도서출판 논형)를 출간했다. 한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서울 공대 교수를 역임, 항공학과의 독립, 탄생에 일조했다. 그 후 시애틀의 보잉 회사로 이직, 오랜 연구 활동 뒤 은퇴와 함께 북가주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그 후 현재까지 북가주 동창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총 900 장이 넘는 사진을 보정하고 설명을 덧붙여 발간된 ‘함흥’은 6.25후 95% 이상 파괴되었다가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그 과정과 함흥의 풍속을 보여주는 일반인들의 결혼 및 생활 전반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이에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동창회보에서 지면을 통해 귀중한 사진 및 시간내용을 소개한다.



한만섭 동문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고향 함경남도 함흥을 떠났다. “16살이었죠. 함흥에서 창궐하던 콜레라를 피해 모친과 함흥 버닷가에서 뚝배를 타고 월남했죠. 아버지와 형님들은 앞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남으로 와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서울대와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항공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서울대 교수를 9년간 가르치다 66년에 도미했다. 미 항공사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25년 일하다 93년에 퇴직했고 그 뒤로 옛 삼성항공 항공우주연구소장도 지냈다. 지금은 북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고향을 떠난 지난 74년 동안 그는 한 차례도 북한 땅을 밟지 않았단다.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트럼프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막은 2017년 전에는 방북이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보잉사에서 군사기밀을 취급해 북한을 오가면 주목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지금도 고향을 찾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태어난 함흥 동네와 함흥 북쪽의 부전고원이 가장 보고 싶어요. 내 건강이 지금도 괜찮아 비행기 여행도 할 수 있어요. 꼭 가고 싶어요.”

그가 최근 동갑인 재독교포 신동삼씨와 공저로 <함흥, 사진으로 보는 전쟁과 재건의 역사>(논형)를 냈다. 52년에 북한 유학생으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한 신씨는 59년에 옛 서독으로 망명했다. 그의 고향은 함흥에서 남쪽으로 20km쯤 떨어진 정평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전화로 두 사람을 만났다. 지난봄부터 지방이 약화해 대화가 어려운 신씨는 파독 간호사 출신인 아내가 인터뷰를 도왔다.

이번 사진집은 7년 전에 신씨가 낸 함흥사진집 <신동삼 컬렉션-독일인이 본 전후 복구기의 북한>을 수정보완한 책이다. 신씨는 동독 건축전문가들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함흥을 재건하기 시작한 1955년에 통역 요원으로 활동했다. 북한 동북 지역 최대 도시인 함흥은 한국전쟁 때 미군 B29 폭격으로 약 95%가 파괴됐다. 동독은 55년부터 62년

### 재독교포 신동삼씨와 공저로 발간

### 만 아흔 동갑으로 함흥과 정평 고향

### 1959년 북에서 서독 망명한 신씨가

### 7년 전 낸 ‘함흥사진집’ 함께 재발간

까지 500여명의 건축전문가를 북한에 보내 함흥 재건을 이끌었다. 서독에 망명한 뒤로 이 나라에서 건축가로 살아온 신씨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10여 년 동안 함흥 재건에 참여한 동독인들을 수소문해 그들이 함흥과 그 주변 지역을 찍은 사진을 모았다.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두운 이 노력의 결

실이 2013년에 나온 사진집이다. 그는 2년 전에는 88살 고령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1955~1962 구동독 도시계획 팀의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시계획’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두고 “독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사”라고 웃었다. 이 논문은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돼 ‘세종’ 도서에도 선정됐다.

두 공저자는 제작년 10월 독일 마인츠 신씨의 집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신씨의 사진집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16살에 함흥을 떠나 함흥에 흥이 많아요. 2018년 여름에 신 선생의 사진집을 처음 봤는데 함흥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신 선생을 만나려고 나 혼자 독일행 비행기를 탔어요.” 첫 만남에서 둘은 사진집을 다시 내기로 뜻을 모았다. “내가 사진을 보고 함흥의 어떤 곳인지 또 부전 고원이나 장진포 사진에 관해 설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중 3까지 함흥에서 살아 흥남에서 학교에 다닌 신 선생보다 함흥은 더 잘 알거든요. 설명을 듣고 신 선생이 책을 다시 내자고 했죠.” 신씨에게 디지털 사진 900장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직접 포토샵으로 변색한 컬러사진을 보정하고 사진설명도 더 달아 사진집을 완성했다.

“이번에 실은 사진(900장)은 이전보다 두배가량 많아요. 아이들이나 시장 모습 등 동독인들이 함흥 주민들의 일상을 찍은 사진이 많이 추가됐어요. 동독 기술자들의 일상을 찍은 사진도 더 넣었죠.”

한씨는 일흔 무렵에 이미지 제작·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배워 20년째 미주 함흥교보 동창생 회장인 <미주반흥> 편집도 해왔다. “포토샵을 배워 50, 60대 교포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격년간지러 46호까지 나온 <미주반흥>을 보면 함

흥학생운동 등 해방 전후 함흥지역 역사를 세밀하게 증언하는 콘텐트들이 눈길을 끈다. 반흥은 함흥 북서쪽에 자리한 반흥산에서 났다.

함흥 사진을 보고 어렸느냐고 묻자 한씨는 “참 슬펐다”고 답했다. “6.25 사변 동안에 함흥이 부서지고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함흥이 참 조용하고 교육도시로 좋았는데,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됐다니 북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가장 눈이 갔던 사진은 “전쟁 뒤 함흥 주민들이 메이데이 등 기념일 행사를 하는 장면”이란단다.

“내가 아는 장소가 많이 있더군요. 사진을 보니 2층이 부서진 공회당을 장식해 단상으로 썼어요. 공회당 앞쪽에 함흥 중심지였는데 건물은 남은 게 없어요. 거기에 명보극장이라는 큰 극장과 함흥택시회사, 금융조합이 있었죠. 명보극장에선 일제가 만든 태평양전쟁 선전 영화도 봤고 해방 이후엔 북한 공산당 선전 모임도 있었죠. 공회당에서는 국민학교 다닐 때 순기정 선수가 마라톤 1등 한 모습이 나오는 올림픽 영화를 봤어요.” 함흥 재건 때 남성 못지않게 많은 여성이 건축 노동을 하는 모습이나 부전고원 사진도 흥미로웠다. “부전

고원에 가본 적은 없지만, 부전고원 수력발전소 저수지 공사(1926~1930년) 이야기를 어려서 많이 들어 흥미가 있었죠. 일제가 발전소를 지으려고 인공호수를 만들었죠.”

올해로 망명 61년인 신씨도 그간 두 차례 북한을 찾았지만 고향 땅을 밟지는 못했단다. 그는 88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가 당시 북한 주석 김일성에게 청원해 2001년과 2009년 방북했다. 하지만 고향 방문은 허가가 나지 않아 평양에서 누이동생 등 친지를 만나야 했다.

일제 말을 함흥에서 보낸 한씨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다. “언젠가 일본에 가면 해군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는 함흥고급중 3학년 때 동기생 150명과 함께 흥남 북쪽에 있는 영흥공장에서 해방될 때까지 하루 8시간 강제 노동을 했다. 그의 1년 위 선배들은 3교대로 야근까지 했다. “비행기 인조 연료를 만드는 공장이었죠. 일본 해군 장교가 공장장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잠까지 자고 4개월가량 일했지만 노임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공장을 위탁 운영한 일본 해군이 정말 노임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나이 든 함흥 여성들만 외출 때 머릿수건 썼죠”

사진집 중에 함흥의 고유한 풍속이나 풍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묻자 한만섭씨는 아래 세 사진을 골랐다. 그의 설명이다. “두 여성의 얼굴 모습(사진④)이 남한 특히 서울이나 호남지방의 옛 여성 모습과는 좀 달라요. 고려 시절에는 고려 천리장성이 함흥 성천강 이남에 있었고 또 함경도에는 여진족이 많이 살아 그곳 사람들은 여진족 디엔에이가 많이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두 여성의 모습은 여진족 디엔에이가 섞인 전형적인 함경도 여성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머릿수건(사진②)도 함경도만의 풍습이란단다. “함흥 지방의 중년 이상 여자 분들은 정장을 하고 외출할 때 꼭 흰 머릿수건을 접어서 모자처럼 만들어 머리에 씌니다. 신부 돌보는 할머니(사진③)도 머릿수건을 쓰고 있죠. 정장 차림입니다. 신랑과 신부 어머니들은 아직 젊어서 머릿수건을 안 쓰고 있었어요. 머릿수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씌니다. 신부가 깔고 앉은 ‘호랑이 가죽방석’도 함경도만의 독특한 풍습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함경도에는 1920년대까지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죠.”

<출처=한겨레>



③머릿수건을 쓴 신부 어머니



④여진족 D&A가 섞인 전형적인 함경도 여성



⑤꼬갸웃 입은 북한소녀와 부모님⑥



⑥철쭉을 꺾어 든 북한 여학생들이 동독 어린이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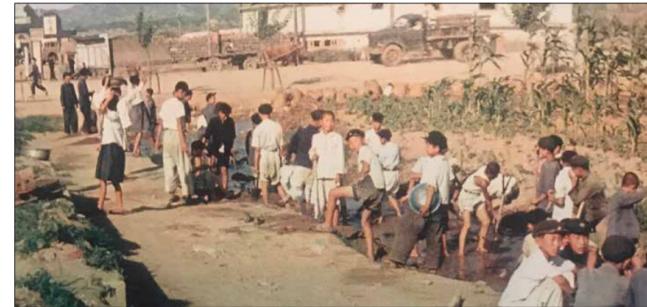
⑦함흥 재건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①1955년 5월1일 메이데이 기념식에서 함흥 여학생들이 2층이 파괴된 함흥 공회당 앞을 북을 치며 지며 지나고 있다.



②신랑과 신부 어머니들은 아직 젊어서 머릿수건을 안 쓰고 있다



⑧북한의 어린이 조역꾼들



⑨함흥평야 북단 근처로 보이는 풍경



# “노숙자들에 삶의 터전과 희망을”

## 아가페 노숙자교회 유시영(문리 68) 대표



◀유시영 대표와 ▶유은주 선교사 부부

2002년, 아가페 노숙자교회를 설립하고 20년간 뉴헤이븐 지역 일대 노숙자 재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유시영(문리 68)대표. 그의 활동을 동문들께 소개하고자 특별인터뷰를 제안했지만 "부족하다"며, 대신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아가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동문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현재 미주동창회 편집위원, 온라인 제작 등 동창회에도 큰 일을 해내고 있는 유시영 대표는 IT업체의 대표에서 은퇴 후 병환 중에도 아내 유은주 선교사와 활발한 선교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편집자주>

현재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홈리스를 위한 Emergency shelter나 temporary shelter에 많은 비용을 할당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low income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숙수 무책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10-20%의 홈리스 인구는 거리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여 여러 근본적인 여러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 근원(root causing alalysis)을 찾으려 하고 있다.

임시숙소, 사회복지 체제, 저소득주택 정책과도 싸워야 한다. 매일 밥 장자리, 주차자리, 화장실문제, 목욕문제 등과도 싸워야 한다. 술을 마시고 약물을 남용하고 학교를 도중하차 하고싶은 유혹과도 싸워야 한다. 겨울의 추운 날씨 외도 싸워야 하고, 길에 만연한 절도, 강도, 폭행과도 싸워야 한다. 그 뿐인가! 자신들의 게으르고 자유분방한, 혼란스럽고 제재가 없이 무질서한 생활습관과도 싸워야 한다. 자신들의 건망증, 무책임, 일시/만성 육신적, 정서적 장애, 중독, 나쁜 습관과도 싸워야 한다. 약속과 시간을 엄수하고, 수업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과제를 시간 내에 끝 마치는 일 모두가 그들에게 힘든 싸움이다. 먹걸이를 위해 싸우고 사랑과 인정받고, 자존심을 지키기위해 싸워야 한다. 실망과 절망과도 싸워야 한다. 그들은 매일 일과가 싸움의 연속이다.

첫째로 안정된 가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직장에서 해직당하고 모계지를 떠났을 때 집을 잃고 이혼을 당하여 거리로 쫓겨나는데 빠르면 6개월만에 노숙자가 된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또 약물이나 마약을 시작해 범죄의 길로 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편에서는 사회의 부조리와 여러 주택의 건설 및 치솟는 주택 임대료 등의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를 보고 있다. 둘째로 한번 실수한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재활 시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감으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 재활의 치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정부나 지역 커뮤니티의 투자가 절실하다. 또한 마약과 밀거래 유행하여 정상적으로 일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공급해 줌으로 모든 것이 물거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여러 정부의 정책과 부의 분배와 세금 정책 등 사회구조의 근본의 모순으로 어떤면에서 새로운 자금과는 아주 다른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의 사역은 신앙적인 인도로 일자리를 얻어 아파트를 얻으려면 주스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며 어떤 때는 deposit을 도와주고 생활 도구를 마련해 새 생활을 시작을 돕는다. 하지만 요즘은 홈리스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고 그 사람, 그

IRS의 filing도 큰 도움을 받았다. 한때 모금이 힘들어 갈 때 지역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셔 이사회를 조직해 줌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게되었다.

### ■ 아가페교회 사역 소개 및 보고

**목적:** 1. 노숙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의 선교로 실천에 옮겨 타락하고 절망에 빠진 노숙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잃어버린 존엄성과 소망을 되찾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2. 커넬리츠주의 한인들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의 일부를 지역 사회의 가난하고 집이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사역:**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서 뉴헤이븐 시와 매달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술 후 길바닥으로 퇴원하거나 노숙생활 중병이 났으나 쓸 곳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아가페 교회는 한 달에 \$440를 Sober House로 보내준다

- **필수품 제공:** 매주일 식사 후 노숙자들에게 버스표를 포함한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이들에게 버스표는 직장을 알선해주는 최선의 수단 교통이기 때문이다  
- **주일예배:** 해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노숙자들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습관을 키워 생의 방향을 잡아 준다. 예일 학생 찬양 팀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도 한다.

- **찬양사역:** 예배 전에 찬양을 한다. 노숙자들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 귀에 달게 들릴 것이다. 찬양은 치유와 구원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봉사의 시간도 가져보길 바란다.

- **심방(Outreach):** 노숙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도서관이나 다른 급식 사역 장에 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선교사와 미리 약속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도 아가페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의 재생의 여정에 동참한다.

- **봉사 자격증:**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에게 (Certificate of Community Service) 제공하고 감사문도 작성하도록 하고 아가페 창립 예배 때 간증의 시간도 하도록 한다.  
- **일자리 지원:** 선교사가 직장을 찾아서 맥도날드, Stop&Shop, 그리고 뉴헤이븐 시와 예일 대학교 막 일들을 찾아서 도와준다.

- **컴퓨터 사역:** 8주간 기초반부터 시작하여 매년 기본을 가르쳐 주고 직장 찾는데 도움을 준다. 미주한인노숙자 단체협의회(KACH)의 회원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미국 사회 여러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예일 학생봉사)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고 겸손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이사님들의 이해와 격려



아가페 하우스가 마련한 겨울용 선물을 받아가고 있는 무숙자들.

인연들을 아직도 그 거리에서 만나게 된다. 노회의 conference를 가면 이제 선교도 해외 선교와 국내선교를 같은 비중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을 직면함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성경적으로는 사마리아와 세상권이 우리 코앞에 있으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해결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선교는 그 투자의 환원과 효용성이 극대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부부가 시작한 아가페 교회는 장로교 본부의 hunger program의 director의 지도와 도움으로 별 문제없이 시작하였으며



이회백(의대 61)

/ 단상 /

## 알래스카 비행 경험담②

<지난호에 이어서>  
충은 없는지라 빌려서 하나 싼고 tent, sleeping bag, gas burner, snow shoe 그리고 마른 음식 등을 실었다. 일행은 나와 동료인 마취의사 하나, 외과 의사 둘, 그리고 X-Ray 의사 등 다섯인데 비행기는 4대였다. 아침에 떠나 이곳에서 약 300마일 되는 Galena라는 마을에서 급유하기 위해 활주로를 향해 내려가는데 관제탑에서 "2514 ZULU, You are heading taxiway, the runway is on the left " 하기에 보니까 눈이 덮여서 잘 분간을 못한 것이다. 알았다 하고 방향을 바로 잡고 내렸더니 일행이 전부들 깔깔 웃고 나를 맞이했다. 같은 radio 주파수에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다들 듣고 있었던것이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시 뒀다. Selawik 은 Galena에서 150마일 정도 서북쪽에 있는 곳인데 가면서 caribou 떼가 있는곳을 찾다가 보이면 근처에 내린다. 물론 활주로 는 있을수 없고 약간 평평한 산등성이를 골라 내리는데 미리 내린 친구가 고기를 굽고 있었다. 처음엔 시간으로 보아 집에서 가져온 고기러니 했다. 그렇게 빨리 잡으리라고는 짐작 할수 없었기에.

그런데 하도 맛이 있기에 이게 뭐냐고 하니까 바로 그게 caribou고기라는 것이다. 먹자마자 그중 하나가 다시 떠 정찰을 나갔다가 오더니 더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두 비행기가 먼저 뜨고 나는

맨 나중에 뜰려고 세번째 떠나는 비행기(내 동료 마취의사와 다른 외과의사 하나가 탄)를 보고 있는데 활주하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눈을 휘날리면서 멋었다. 떠 나던 다른 두 비행기도 가다말고 되돌아와 내렸다. 쫓아가서 보니 Landing Gear 가 부러졌고 비행기 한쪽 날개가 눈에 파묻혔으며 날개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눈이 온 후 바람이 불면 낮은곳에 눈이 덮이기 때문에 평평한것 같이 보이지만 눈밀은 울퉁불퉁해서 단단한데를 Landing Gear 가 받아 붙어졌던 것이다. 같은 지면에서 뜬데 다른 비행기는 관촬았는데 이친구 만이 사고가 난것은 무게 탓이다. 다른 비행기는 다 한사람만 탔는데 이 친구 비행기엔 두 사람이 탄데다가 둘 다 동보였다.

우선 흘러떨어지는 기름을 통을 갖다 대서 받고 천막을 치고는 sleeping bag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 들렸다. 바깥 기온은 영하 30도 가량, 여기 날씨치고는 포근한 날씨라는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부서진 비행기에서 내린 짐은 다른 한 비행기에 다 싼고 떠나고 내동료 마취의사는 다른 외과의사와 가기로 하고 나는 동보 외과의사를 떠맡게 되었다. 내가 제일 가벼우니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자를 떴놓고 온지라 앉을 의자가 없게 문제였다. 의자도 없는데 사람을 태우는것은 위법이지만 사정 이 이리니 할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었다.

↳ 움직이지 않고 충성스러운 인재를 보내 주서 겨자씨를 뿌리듯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동으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재들과 지내는 영광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싶다. 한때는 신학대학 교수와 여러 신학생이 참여하던 일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school bus를 대절해 80여명이 같이 예배를 보며 선물을 받던 시간도 있었다. 우선 봉사자들을 소개를 하고 싶다. 오래된 일이지만 눈이 많이내려 간신히 치만 빠져나갈 수 있게 눈을 치우고 회회를 갖는데 그런 날은 shelter에서 사람들을 hold하고 내보내지를 았는다. 그럼에도 그날 14명의 학생과 봉사자가 눈 속에서 고생할 홈리스를 안쓰럽게 생각해 모두 나온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으나 우리를 끼리 음식을 나누는 날이었다. 어느때는 홈리스인지 봉사자인지 잘 구별이 안돼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한 여학생이 3주를 계속나와 인사를 하며 통성명을 하니 3개월 후에 예일 법대를 졸업하게 된다고 하나 혹시 홈리스가 아닌가 해서 조심

스러웠던 미안한 마음이 안쓰러웠다. 졸업식날 부모님과 함께 참석을 하니 아버지는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판사로 그 딸이 졸업하면 어머니 사무실에서 일할 것이라 한다.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이상의 티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배움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달 후에 이인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며 매주 무엇을 준비하느냐고 물어 왔다. 졸업하고 시카고로 돌아가면 본 인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했다. 졸업 후 첫 월급에서 \$2,000을 보내고 인연이 끝났지만 인생의 큰 흔적을 남기는 즐거운 삶의 기쁨이다.

그동안 봉사하러 나온 가운데 서로 알게 되 결혼하게 된 부부가 네명이며 우리는 결혼을 도와준 부부도 있다. 물론 우리는 홈리스를 인도하는데 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며 홈리스들이 자신의 삶에 조명을 해 고백을 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젊은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 앞으로 사회의 지도자로 사회를 건설할 때 올바른 공

사용하는것 같다고 수근거리는 수술방 간호원들도 있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포함해 병원과 외과 과장등 다른 staff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놓고 있는 동안 문제의 그 비행기를 타고 Fairbanks 비행장에 내리다가 활주로에서 곤두박질(cartwheel)을 세차레나 해서 비행기를 완전히 파손 하고 말았다. 다행히 그는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다. 그후 그는 처와 이혼하고 Montana 주 Billings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풍문만 듣고 있었는데 하루는 병원과 나를 변호하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사고는 그의 두번째 사고다. 첫번째 사고는 새 비행기를 Georgia에서 사가지고 오다 첫번째 내릴때 일어났다. 내리다가 ground loop를 한것이다. 비행기를 다시 Georgia에 보내서 고친 후 다른 사람을 사서 가져왔다. 산에서 부서진 비행기는 비행기 mechanic 이 산에 가서 임시 수리한후 FAA 특별 허가를 받아 Fairbanks 에 날라와 고쳐서 타고 다니던 중이었는데 얼마후 병원 치료권익(privilege) 를 정지 당했다. 그의 정신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들이 생겨 정지 당한것이다. 이때 내가 낮에 일하면 그는 밤에 일하고 그가 낮에 일하면 나는 밤에 일했던 탓으로 그를 관찰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마약

의의 가는데 도움을 주리라는 염원에 흐뭇해할 수 있는 부산물이 아닐까 한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 봉사하러 나왔다. 나중에 알고보니 학의 학점을 취득 해야 아가페교회를 택한 것이다. 그 학생은 첫날 같은 자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방향하던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 매료되어 심장이 박동하는 첫날의 이미지가 그 학생의 좌표가 된 것이다. 그 후로 계속 봉사를 하며 제일 먼저 나와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귀한 우리의 보배가 되었다.

홈리스의 한 남자를 소개하고 싶다. 한달을 계속해 나왔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자가 심하게 비가 오는 날 문열기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며 기도해 줌으로 아가페 교회에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끊이지 않고 컷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며 아직도 뉴헤븐 시티에서 foreclosure한 집을 얻어 마음껏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하는 염원을 가지고...

그에 의하면 그(마취의사)가 간 병원에서 두 부부 마취의사가 있었는데 언제 이혼했는지 이혼 하고서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중 이 여자 마취의사는 여기서 날 마취의사와 결혼, 같은 병원에서 셋이 일하고 있었다. 이 여자에게 딸린 두 딸은 엄마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마취 의사가 둘다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집에다 전화 했으나 받지 않자 병원에서 경찰에 연락, 경찰이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고 차고에서 엔진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리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여자와 두 딸은 충을 맞고 죽어 누워 있었고 남편은 차 엔진을 켜 놓은채 차 안에서 죽어 있는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유사 같은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유하고 있던 서류들을 태운 fireplace는 그때까지도 뜨겁게 달궈 있더라는 것이다. (끝)

우리의 상황과 갈 길은 멀고 험해도 젊은 봉사자들은 별 의심이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해 줌으로 아가페 교회는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끊이지 않고 컷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며 아직도 뉴헤븐 시티에서 foreclosure한 집을 얻어 마음껏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하는 염원을 가지고...



권오울(상대 56)

2020년에 세계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3.4%나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전망은 불안하고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하게 될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경제의 특성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극복을 위한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 경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일하고, 생산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적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 변화의 규모, 범위, 복잡성이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그 혁명의 경제적 영향은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현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래의 작업과 직업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다윈의 '적자생존'이라는 격언이 암시하듯, 우리가 이 혁명적이고 불안정한 시대를 대비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혁명에 희생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생물학적·물리학적 혁신이 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고속 모바일 인터넷 등 여러 중요한 기술의 빠른 발전도 포함한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인간-정보의 연결인 데 비하여 4차 산업혁명은 인간-정보-소재-위치의 융합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기술은 디지털기술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도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은 몇 가지 근본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거나 쓸모없게 된다. 간단한 기술과 여러번 반복되는 제조과정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의 불평등이 국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

/ 오피니언 /

가 간과 한 국가 안의 국민 간에서 심화한다. 기업이 AI와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나면 제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지극히 적다. 따라서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독점기업이 된다. 이렇게 신기술을 수용하고 채택하는 국가 및 이에 고용된 사람들은 번영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개인에 관계없이 뒤처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혜택과 위험을 초래한다. 주요 이점으로는 생산성, 생활의 질, 의

개의 일자리가 AI, 로봇과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1억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새 직장을 채우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고용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어떤 일자리도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벌써 대부분 근로자는 일생 동안 3~5번 직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개인이 어떤 필수요건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의

의력의 선구자이다. 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기술에는 전자 도구, 시스템, 장치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 저장, 처리 및 분석하는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다.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데이터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은 미래의 사업계에 매우 중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성실성, 도덕성, 책임감, 사고성 및 팀 정신을 가진 좋은 성격 또는 인성도 길러야 한다. iii)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창의력이다. 한동안 미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으로 꼽힌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존의 기술, 정보, 소재,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높은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의력이다. 그러므로 창의력 개발 과정은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한 깊은 개념적 지식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 여러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역량을 요구한다.

창의력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다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진 사람들 간의 협력이 필요 불가결하다. 따라서 문헌에 창의력 개발을 위한 T-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T의 수직 막대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수평 막대는 좋은 인성을 갖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협동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계속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전할 사람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좋은 인성과 함께 폭넓고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협동하고, 자기의 지식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다. 위에서 파악된 필요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한다.

### 계속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하에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전할 사람은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좋은 인성과 함께

### 폭넓고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협동하고,

### 자기의 지식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다.

사결정 등의 향상과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가능성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전자 상거래, 교육, 자택 근무와 같은 온라인 경제 및 비즈니스 활동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고 이에 대비하려 열안이 되어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 특히 고용시장에서 여러 가지의 혼란을 일으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7천5백만

명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제학 문헌과 실업계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i) 새로운 지식, ii) 새로운 기술, iii) 창의력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iv)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배우고 배양하는 개념적 지식과 사고력이 포함된다. 개념적 또는 원칙기반 지식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력의 기초를 뒷받침한다. 사고력(thinking skills)은 복잡한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포함되며, 후자는 창



오세경(약대 61)

/ 오피니언 /

## 경계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경계선이 있다. 대개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때로는 이런 인위적인 경계선이 자연으로 만들어진 경계선보다 더욱 견고한 경우도 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우리 한국의 휴전선일 것이다. 미, 중, 소가 한반도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작은 새우들이 터진 것인데, 이 경계선은 과거 70년 가까이 서로 굳게만 지키고 있어서, 이 분계점을 계기로 하여 3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 경계선은 좀처럼 쉽게 무너질듯하지 않다. 이와같이 국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류의 비극은 한두곳이 아니다. 오늘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따로하고, 우리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또는 과학적인 분계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한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의 분계점을 고려해보자. 문명생활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의 얼음을 점차로 빨리 녹이고 있는데, 만일 이 얼음산이 모두 녹으면 바다의 수면이 적어도 6-7m 가 상승하리라고한다. 이러한 높이는 적어도 4층의 건물의 높이에 해당된다. 이 정도의 수위가 되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들은 물속의 왕국이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의 해안도시, Charleston, Houston, New Orleans 등도 바다물에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면에, 과거에 얼음의 왕국이었던 쏘련의 도시들은 점차 인간이 생활하기 쉬워져서, 현재의 모스크바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도시로 변하였다고한다. 양극의 얼음이 녹음에따라 이곳에 숨어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도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구의 오염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1960년대에 달을 탐사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우주를 탐사하는 노력은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우주 공간에서 우주정거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6개월내지 1년의 생활을 지탱하는 우주인까지 생겼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이곳에까지 인간이 거주할 세계를 확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많다고한다. 근대에 와서는 정부나 개인이 이런 지구상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양을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켜 놓았다.

근대문명의 부산물은 비단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바다에 버려져 거북이나 고래같은 해양생물을 질식사시켜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의 오염문제는 바다속 깊이 100 KM속에서도 발견된다 하니, 이런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한국 서해의 해양수산물은 싹쓸이 해가고 그들의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져 남한의 어부들이 이것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는다고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을 몰수듯하는 남한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중국인들의 만행이나 별 차이가 없다. 상인들은, 장사의 이익이 얼마 안되는데 값비싼 종이제품을 쓸수없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마구 사용한다. 택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된 한국에서는 요식업계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경우가 상당히 많다. 더구나 코로나의 판데믹은 이러한 생활양식을 더 증폭시키게되어, 이로 인하여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가 결국은 어떻게 처리 될것인가를 염려하는 사람은 드물다. 미래야 어떻게되든, 그저 현재에만 잘먹고, 잘입고 즐겁게 살면 된다는, 극히 근시안적인 극락주의의 한국인 생활철학이 어쩌면 한국사회가 노벨수상자를 배출할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염려된다.

여기서 잠깐 왜 남한 사람들이 염원하는 노벨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잠시 생각해보자. 노벨수상을 받으려고하면, 우선 그에 합당한 중요한 과제를 찾아야하는데, 현재의 남한은 한국전쟁이 끝난지 거의 70년이 되도록 그러한 과학적인 텃밭을 마련하지 못했다. 설명, 외부에서 좋은 과제를 찾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내지 40년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한다 (물론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노벨상을 탄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재의 남한에서는 이렇게 오랜기간을 두고 연구에 전력을 인력과 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근래에는 기초과학에 진출하려는 학생수도 상당히 줄고 있다고하니, 남한에서 노벨수상자를 배출할 확율은 더욱 더 희박해가고 있다. .

이런 문제를 이미 예측했는지, 18세기 불란서의 자연주의자 쥘 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그의 외침이 새로워진다. 이미 돌이킬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지구의 환경오염을 알아챈 일부의 기업인들은, 지구 이외에 사람이 살수있는 다른 행성을 탐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와같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행성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으며, 또 설령 우주안에서 그런 행성을 발견한다하더라도 그곳에 도달하는데는 무한한 재력과 오랜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이것은 마치 아합선장이 자기의 다리를 물은 상어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모비딕과 같은 불운의 모험에 그칠것이다.

/ 단상 /

## 보고싶은 큰 형님



홍경삼 (문리 61)

중고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얼굴을 서로 보면서 통화하는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어 보고 싶은 사람과 화상통화를 한다.

이곳에 사는 삼형제가 둘째형님댁에서 추석날 모였다. 우리집안의 대장금으로 통하는 작은형수님이 차려 주신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작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큰형님과 화상통화를 시작했다.

병상에 계신 분에게는 보약 보다도 더 좋은 것은 즐거운

마음 가짐이라 하지 않던가? 돌아가면서 건강하시라고 한마디씩을 하니 그리 좋아하시더니 물으신다. "아~ 우리가 4형제인데 왜 세 명만 있냐? 한 명은 어디 갔냐?" 막내가 "형님~ 돼지형제들 산보 갔냐요? 한 명은 큰형님이잖아요?" "나? 어~, 그렇구나." 처음엔 우릴 웃겨 주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분위가 그것이 아니라 약간 착각을 하신 것 이다. 이곳의 삼형제 부부는 모두 웃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들 惠話에 나오는 장면을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사리 판단을 잘 하시던 나의 큰형님이 연출하시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청력이 떨어지시어 우린 큰소리로 말씀을 드려야만 했다.

California 산불 연기로 휘영청 밝아야 할 추석의 만월은 분홍색을 띄고 마지 못해서 빛을 내며 울적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머칠 후 막내집으로 갔다. "큰형님 뵈러 나가고 싶는데???" "그러게요, 나가면 한국에서 2주, 돌아와서 2주 격리도 문제이고 또 좁은 비행기 내에서 혹시 코로나에 우리가 전염이 되면 연세 많은 형님에게 옮길까?가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형님께 인사를 직접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고 늙어서도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형수님이 옆에 항상 계신다는 것에 내 마음을 위로를 하고 싶고 큰형수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 우리 4형제 중 3명이 동문이다. 큰형님 홍병홍은 공대 54학번이며 막내 홍병익은 공대 68학번이다. 아버지 홍준기 박사님도 서울공대 자원공학과 교수로 평생을 보내셨으며 누님 홍혜정도 공대(52학번)이다.



오른쪽부터 누님 홍혜정(남편도 공대 출신 최순달박사), 홍병홍, 홍경삼, 아버지 홍준기교수, 홍병익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5대 신응남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청량한 바람 맞으며 자연의 신비 만끽

남가주 산악회 조슈아트리 캠핑여행

남가주 서울대 동문 산악회(대장 김동근, 공대 60)에서 지난 5/31 - 6/1 일박 이일 조슈아트리 캠핑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캠핑에서 우리 서울대 산악회는 또 한 번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고 돌아왔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은 남가주 Los Angeles에서 동쪽으로 약 140여 마일 내륙 쪽에 Palm Springs 근처에 위치한 광활한 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특히 이름에서 보듯 Joshua Tree가 곳곳에 팔을 벌리고 서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지구 외계의 모습같은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수없이 널려있어 가히 rock climber들의 천국이라 하겠다.

첫 날 만남의 장소인 Hall of Horrors에서 비좁은 바위 틈새를 빠져 나가느라 스멀스멀 올라오는 폐쇄공포증을 견디며 첫 먹던 힘까지 다 써서 다시 밝은 해가 비치는 밖으로 나오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Arch Rock을 찾아 오랜 세월 자연풍화로 이뤄진 아치 앞에서 우리들은 아이들처럼 기뻐하며 사진에 담아 오려 마음에 간직하려 분주히 움직였다.

Split Rock에서 곳곳에 커다란 바위들이 갈라진 모습들을 보며 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린 감성의 한 대원이 꽃봉우리 같다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마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같기도

한 바위도 만났다.

첫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Skull Rock 앞에서 각자 기념사진을 찍고 캠핑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예약한 Sheep Pass Group Campground는 다른 캠프사이트와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끼리만 온전히 조슈아트리공원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다. Memorial Day 인 월요일에 캠핑장에서 대원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인도자의 구령에 따라 전장에서 자유를 지키려 우리 대신 피 흘려 싸우고 돌아가신 영웅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대원들이 텐트를 치고 potluck dinner로 준비해 온 음식들을 피크닉 테이블에 올려 내놓고 한 쪽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스테이크와 불타는 campfire 옆에서 저녁 만찬을 나눌 때는 지상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하였다. 식후 생라나는 팍송을 돌아가며 독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특히 한 대원이 포도주 몇 잔에 흥이 나서 대원들은 한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옛 노래를 연속해서 들을 수 있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에 좋은 사람들과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해 간 음료를 모두 비우고는 세찬 바람소리가 텐트를 두드리는 소리를 자장가로 여기며 모두들 숙면을 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직 해가 조슈아트리 팔 벌린 사

이를 뚫고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기도 전에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나 사막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주변을 걷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두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을 덕분에 아침밥도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직 기온이 많이 오르기 전 Ryan Mountain 5457ft를 올랐다. 산길을 한 시간쯤 오르니 산 정상에 다달아 이미 80도 넘어 기온이 올랐음에도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더위를 단번에 날려주었다. 조슈아트리를 몇 번 왔어도 늘 바위 사이에 난 트레일을 건너나 바위 위를 기어올라 갔었고, 높은 산 위에서 조슈아트리 평원을 내려다 보기는 처음이었다. 산 위에서 360도 파노라마뷰를 만끽하고 이미 데워져 있을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싫은 발걸음을 때려 청량한 바람을 뒤로 하고 넓은 평원을 계속 내려다 보며 하산하여 다시 평지로 내려섰다.

Hidden Valley로 이동하여 이번 여행의 백미인 Chasm of Doom (지옥의 틈)으로 들어갔다. 이름에 걸맞게 그곳은 어찌보다 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좁디 좁은 바위틈이 연달아 나타나는 곳이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바위와 바위 사이 one

foot 정도의 좁은 수평공간을 누워서 송충이처럼 움직여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나와 매우 날선한 네 사람만 그 좁은 바위틈을 지나 건너편으로 나갈 수 있었고, 대부분의 나머지 대원들은 바위 틈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고 어쩌면 오백년간 (five hundred years!) 끼어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만 되돌아 나왔다. 혼자서는 절대 해 볼 수 없는 일로서 리더가 앞서 이끄는 대로 믿고 따라가서 어느 놀이공원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시 Hidden Valley 주차장에서의 오찬은 점심의 공포심을 싹 잊게 해주는 맛깔난 점심이었다. 주차장에 있는 등그런 바위는 우리 산악회가 올 때마다 김동근 대장님의 신묘한 바위타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날도 모두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어려운 바위타기를 하는 듯 대리 만족하며 때로는 박수를 치며 넋을 잃고 구경하였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다음을 또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모두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문의: 대장 김동근 805-660-3191

<글/사진= 김민권 (치대 72)>



인디언들의 성스러운 바위가 만들어 주는 그늘에서 점심식사



Arch Rock 앞에서



저녁식사 후 모닥불 앞에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대원들

# 미주동창회 고령화, 현실로... 젊은층 참여유도 모색해야

## 50~69학번 회비납부 전체의 87%... 80학번대 이상 1.4% 불과

15대 미주동창회에서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학번대별 회비납부 현황과 미주동창회보 발송수, 회비 납부수를 분석했다. 15대 2차년도(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개월간)의 학번대별 회비납부 현황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남가주와 뉴욕지부가

각각 243명과 176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카고, 워싱턴 DC, 뉴잉글랜드가 뒤를 이었다. 학번대별로 보면 60-69학번대가 3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뒤이어 50-59학번대가 273명으로 36%를 기록했다. 70-79학번이 10.7%를 차지했으며 80학번대

이상은 1.4%에 불과했다. 분석해보면 50-69학번대가 전체의 87%를 차지, 동창회의 고령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미주동창회보 발송수 및 회비납부수의 경우 남가주가 2289부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뉴욕이 1279, 워싱턴 DC 712, 시카고가 561부로 나타났다. 회보 발송건수대비 회비 납부 동문수 비율은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플로리다, 커네티컷 등 중소 도시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번대별 회비납부 현황 15대 2차년도 < 2020. 7 ~ 2021. 5 >

주요 지부/학번대	40 - 49	50 - 59	60 - 69	70 - 79	80 +	TOTAL
뉴욕지부	2 (1.1%)	43 (24.4%)	115 (65.3%)	14 (8.0%)	2 (1.1%)	176
남가주	2 (0.8%)	89 (36.6%)	115 (47.3%)	34 (14%)	3 (1.2%)	243
북가주	0 (0%)	28 (43.8%)	28 (43.8%)	7 (10.9%)	1 (1.6%)	64
뉴잉글랜드	0 (0%)	12 (40.0%)	12 (40.0%)	6 (20.0%)	0 (0%)	30
시카고	2 (2.2%)	36 (39.6%)	46 (50.5%)	6 (6.6%)	1 (1.1%)	91
워싱턴 디씨	1 (1.3%)	33 (42.9%)	34 (44.2%)	6 (7.8%)	3 (3.9%)	77
조지아	2 (7.4%)	9 (33.3%)	13 (48.1%)	2 (7.4%)	1 (3.7%)	27
필라델피아	1 (1.9%)	23 (44.2%)	22 (42.3%)	6 (11.5%)	0 (0%)	52
<b>TOTAL</b>	<b>10 (1.3%)</b>	<b>273 (35.9%)</b>	<b>385 (50.7%)</b>	<b>81 (10.7%)</b>	<b>11 (1.4%)</b>	<b>760</b>

### 미주 동창회보 발송수 / 회비납부수 7411/ 901 <15대 2차년도>

지역	성함/단대	회보 발송수	회비납부 동문수	지역	성함/단대	회보 발송수	회비납부 동문수
남가주	최용준 (수의81)	2289	243 (10.6%)	워싱턴주	이명자 (간호74)	218	22 (10.1%)
북가주	임준원 (공대77)	505	64 (12.7%)	유타	김한섭 (공대93)	15	4 (26.7%)
뉴욕	조상근 (법대69)	1279	176 (13.8%)	조지아	이영진 (공대76)	257	27 (10.5%)
뉴잉글랜드	김정선 (문리66)	244	30 (12.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0	0
북텍사스/ 달라스	강성호 (수의81)	217	17 (7.8%)	플로리다	최희덕 (사대68)	110	15 (13.6%)
룩키마운틴	최용운 (공대77)	43	1 (2.3%)	테네시	김상호 (공대86)	31	2 (6.5%)
미네소타	차재호 (농대84)	104	16 (15.4%)	하와이	성낙길 (문리77)	53	6 (11.3%)
샌디에고	유재호 (공대90)	116	2 (1.7%)	하트랜드	이치현 (약대77)	102	8 (7.8%)
시카고	김윤하 (공대66)	561	92 (16.4%)	휴스턴	구자동 (상대70)	102	10 (9.8%)
애리조나	오윤환 (문리56)	29	5 (17.2%)	커네티컷	유시영 (문리68)	58	8 (13.8%)
앨라스카	윤재중 (농대55)	3	1 (33.3%)	필라델피아	지흥민 (수의61)	185	52 (28.1%)
오레곤	전병택 (상대65)	54	8 (14.8%)	캐롤라이나	지원식 (공대85)	46	8 (17.4%)
오하이오	이성우 (상대72)	78	7 (9.0%)	합계		7411	901 (12.1%)
워싱턴 DC	박상근 (법대75)	712	77 (10.8%)				(Updated: 05/31/21)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b>Kyung Moo Kim CPA &amp; Accounting Corp.</b>
<b>김경무 (공대 69)</b>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b>AAMKO Consulting Co.</b>
<b>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b>
<b>T: 213-380-3801</b>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b>이강원 (인문대 76)</b>
<b>T: 213-387-1234</b>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b>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amp; Business Consultants</b>
<b>강호석(상대 81)</b>
<b>T: 213-380-5060 (LA, CA)</b>
<b>T: 714-530-3630 (Garden Grove, CA)</b>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b>장 준 (인문 85)</b>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b>차기민 (공대 85)</b>
<b>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b>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b>임춘택 (상대 68)</b>
<b>T: 213-380-4646</b>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b>김원철 (농대)</b>
<b>T: 213-380-4646</b>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b>권국원 (공대)</b>
<b>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b>
869 Irolo St., LA, CA 9000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b>김원탁 (공대 65)</b>
<b>O: 818-514-6780 / M: 818-720-2373</b>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b>서치원 (공대 69)</b>
<b>T: 310-719-5422</b>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Tayco Engineering, Inc.</b>
<b>정재훈 (공대 64)</b>
<b>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b>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b>하기환 (공대 66)</b>
<b>T: 213-381-3610</b>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b>한태호 (인문대 75)</b>
<b>T: 213-639-2900 / F: 213-639-2909</b>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신혜원 변호사</b>
<b>신혜원 (사대 81)</b>
<b>T: 213-385-3773</b>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b>이경희 (인문대 83)</b>
<b>T: 213-385-IMIN (4646)</b>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b>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b>
<b>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b>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b>이승훈 (상대 74)</b>
<b>T: 562-633-7400</b>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해태 USA (Haitai Inc.)</b>
<b>정정우 (수외대 74)</b>
<b>T: 323-890-0101</b>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b>복창동 순두부</b>
<b>이태로 (법대 50)</b>
<b>B) (213) 382-6677</b>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Seoul Medical Group</b>
<b>차민영 (의대 76)</b>
<b>T: 213-480-7770</b>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b>VIP 성형외과</b>
<b>최광휘 (의대 70)</b>
<b>T: 323-965-1717 / F: 323-965-1855</b>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b>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b>
<b>Christopher K.Chung MD</b>
<b>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b>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기타</b>

<b>Beverly Cardiology Group</b>
<b>Il Young Kim MD (의대 65)</b>
<b>Diana Kim MD</b>
<b>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b>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b>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b>
<b>정수만 (의대 66)</b>
<b>T: 714-539-6414</b>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의료 / 치과</b>
<b>Choi Gilbert Pharmacy</b>
<b>최무식 (약대 66)</b>
<b>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b>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황준오 DDS</b>
<b>황준오 (치대 73)</b>
<b>T: 408-732-0493</b>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b>하선호 (치대 81)</b>
<b>T: 213-365-1008 / ddsshp@yahoo.com</b>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b>신동국 (수외대 76)</b>
<b>T: 714-990-1411</b>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b>최재현 (수외대 66)</b>
<b>T: 909-627-0951 / 909-627-0715</b>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b>한상봉 (수외대 67)</b>
<b>T: 510-232-3465</b>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b>오영문 (수외대 64)</b>
<b>T: 951-687-2630</b>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b>이병준 (상대 55)</b>
<b>T: 949-655-8000</b>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b>서동영 (사대 60)</b>
<b>T: 310-753-9636</b>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ACCU Construction, Inc.</b>
<b>염동해 (농대 74)</b>
<b>T: 714-641-4730</b>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b>독고원 (공대 65)</b>
<b>T: 818-790-7320</b>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b>이상대 (농대 80)</b>
<b>B: 909-882-3800 / C: 714-323-8612</b>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b>KL CPA &amp; Associates LLC</b>
<b>이경림 (상대 64)</b>
<b>T: 212-768-9144</b>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b>이전구 (농대 60)</b>
<b>T: 212-564-2255</b>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신용남 변호사</b>
<b>신용남 (농대 70)</b>
<b>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b>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b>윤의규 (상대 82)</b>
<b>T: 201-978-7055</b>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b>백승원 (의대 73)</b>
<b>T: 201-302-9774 / 732-744-9090</b>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b>석창호 (의대 66)</b>
<b>T: 718-461-6212</b>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b>이창석 (의대 72)</b>
<b>T: 718-762-4400</b>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b>김해암(의대 53)</b>
<b>T: 212.879.2322</b>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b>박범열 소아과</b>
<b>박범열 (의대 75)</b>
<b>T: 718-229-1188 / 718-899-4600</b>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박중호 소아과</b>
<b>박중호 (의대 79)</b>
<b>T: 201-242-1002</b>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윤세웅 비뇨기과</b>
<b>윤세웅</b>
<b>T: 718-335-3333</b>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b>김승호 (공대 71)</b>
<b>T: 718-463-0001</b>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김치갑 통증병원</b>
<b>김치갑 (의대 73)</b>
<b>T: 201-541-1111</b>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b>김승관 (의대 70)</b>
<b>T: 718-321-2870</b>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b>김성래 (치대 76)</b>
<b>T: 201-750-0011</b>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b>김기택 (수외대 81)</b>
<b>T: 201-814-0095</b>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유통 / 네일제품</b>
<b>Kiss Products, Inc</b>
<b>김광호 (문리 62)</b>
<b>(516)625-9292/ (516)625-5599/1962</b>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b>엄달용 (공대 69)</b>
<b>T: 703-489-2474</b>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김권식 (공대 61)</b>
<b>T: 612-961-6878</b>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b>식품 / 음식점</b>
<b>우래옥</b>
<b>백행남 (문리 60)</b>
<b>T: 703-827-7300</b>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k.com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b>정세근 (자연대 82)</b>
<b>O: 703-663-8400 / C: 703-785-8467</b>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b>Fairway Asset Corporation</b>
<b>남옥현 (경영대 84)</b>
<b>T: 301-279-6969</b>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dloan.com
<b>필라델피아   PA</b>
<b>건축</b>
<b>Timothy Haahs &amp; Asso.</b>
<b>손재욱 (생활과대 77)</b>
<b>T: 484-342-0200</b>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b>의료 / 치과</b>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b>김순주 (치대 95)</b>
<b>T: 610-278-1110</b>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b>식품 / 음식점</b>
<b>이즈미 일식당</b>
<b>최종문 (공대 61)</b>
<b>T: 267-408-7342</b>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b>오레곤   OR</b>
<b>엔지니어링</b>
<b>Flonomix Inc.</b>
<b>박희진 (농대 78)</b>
<b>T: 503-648-0775</b>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b>기타</b>
<b>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b>
<b>서울대 언어교육원</b>
<b>T: 82-02-880-5488</b>
kjp@snu.ac.kr

### SNU Alumni Association USA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 (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 (2021. 7 ~ 2023.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2416 James M. Wood Blvd. #C Los Angeles, CA 90006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종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욱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최용준 (수의대 81)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Feb-Jan
	차기회장	박재환(문리 75)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윤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yong@umn.edu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oy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kros@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스틴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이학호(수의대 59)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캘리포니아 SC/NC/KY	회장	김건일(상대 59)	417-277-1636 ken_13269@msn.com	Jan-Dec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박용해 (상대 83)	203-767-8187 yhptax@gmail.com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부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장희순(문리 75)	778-990-6589 sphro17@gmail.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 8월부터 제16대 임원 명단이 게재될.

www.taycoeng.com

#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jayone.com

##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duouusa.net 대표이사 박수경 [84주 소비자학과] since 1999 듀오 USA

# 결혼해듀오

결혼이란,  
집 밖을 나서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LA 213-383-2525 NY 201-947-2525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 16대 임기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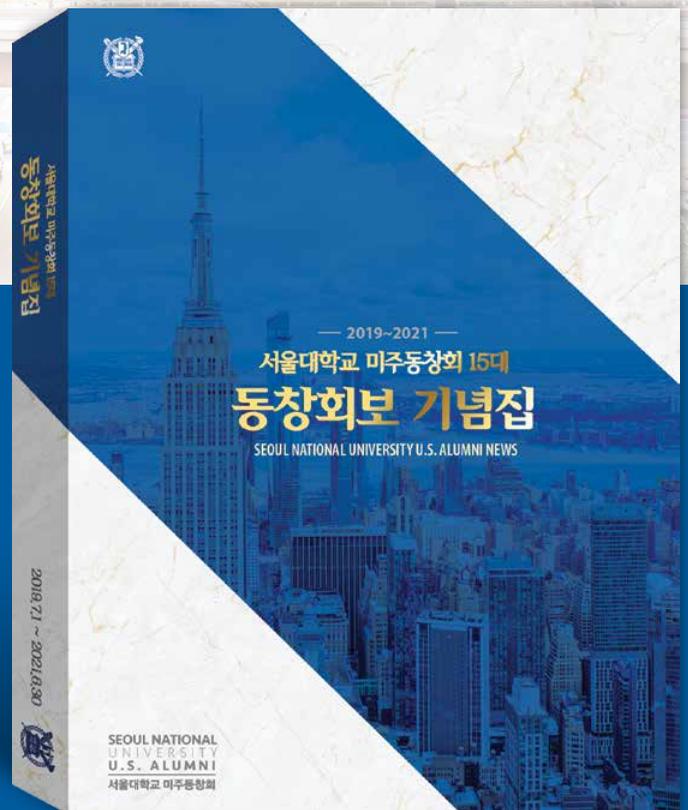
7월1일, LA에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16대 임기의 막이 오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6대 회장 및 임원진들, 축하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장 신응남 및 임원일동

## 제15대 임기 동창회보 기념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15대 동창회(회장: 신응남)에서는  
임기중 발간된 회보를 묶어 6월 15일 기념집을 출간했습니다  
필진 및 동문들 중 원하시는 분은 동창회로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우송료가 있습니다.



S N U A l u m n i A s s o c i a t i o n U S 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